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 TWO CHAIRS

SEPTEMBER+OCTOBER



2025 vol.74

---

**SPECIAL THEME** Local Escapes: New Vibe **LIFE &**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황금빛 도시 라오스 루앙프라방  
**SENIOR &** The Essence of Wellness **WEALTH &** 수도권 최초 프리미엄 자산관리 거점 TWO CHAIRS W 송도

# 아시아뱅크 선정 ‘202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WEALTH & SOCIETY 2024

BEST PRIVATE BANK IN SOUTH KOREA



September and October

## Golden Hours

〈TWO CHAIRS〉 9+10호에서는 지방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로컬 축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되고 풍부해진 콘텐츠로 지역의 이름을 알리고, 대중의 발길을 이끌고 있죠. 로컬 여행을 하고 싶게 만드는 축제와 로컬 여행 시 도움이 될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9월 초 서울을 뜨겁게 달굴 아트 페어 프리즈 서울과 KIAF 소식,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신드롬, 캠핑을 보다 근사하게 만들어줄 캠핑 레시피, 여행보다 깊이 있게 그 도시를 알 수 있는 책 소개도 담았습니다.

가을은 청명한 날씨와 달라진 자연 풍경 덕분에 어딘가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계절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자연이 선물하는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CONTENTS

SEPTEMBER+OCTOBER  
2025 vol.74



## 05 Special Theme

### 06 INTRO

로컬이 Pop! Pop!!

### 08 TREND

이제, 로컬 전성시대

### 12 LIST UP

축제로 보는 新로컬 여행 #키워드

### 20 PICK

당일치기 여행으로 어디를 갈까?

### 24 ITEM

로컬 갈 때 이거 어때?



## 27 Life &

### 28 TRAVEL ▶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황금빛 도시  
라오스 루앙프라방

### 36 ART

아트로 시작하는 서울의 가을  
FRIEZE×KIAF 미리 보기

### 40 EXHIBITION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사라지다  
〈2025 ACC 포커스-료지 이케다〉

### 44 ARCHITECT

지역과 인간 중심 설계를 보여주다  
류자쿰의 자쿰 건축

### 50 STAY

New Luxury Stays in Asia

### 56 WHAT'S HOT

글로벌 트렌드 된 한국 문화

### 60 CURATION

신직장 문화 요지경

### 64 CLASSIC SPECIAL INTERVIEW

선율로 잇는 세계,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 69 Senior &

### 70 PLACE

The Essence of Wellness

### 72 SIGNATURE HOLE

한국 퍼블릭 골프장의 역사를 담은  
육각형 골프 클럽

### 76 GOLF LESSON

아이언 샷에서 정확도 높이는  
실전 전략

### 80 READING

그 도시처럼 읽고, 쓰고, 여행하라

### 84 RECIPE

자연 속에 차린 최고의 미식 테이블  
Fireside Feasts

### 90 HEALTH

늦춰야 산다, 슬로 조깅



## 93 Wealth &

### 94 MEET

수도권 최초 프리미엄 자산관리 거점  
TWO CHAIRS W 송도

### 100 INVESTMENT

연준의 9월 선택,  
물가와 독립성을 동시에 지킨다

### 104 REAL ESTATE

주택 월세 시대 어디까지 왔나

### 108 TAX STORY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한 절세 비법

### 112 READERS LETTER

### ▶ QR코드 아이콘 가이드

유튜브 등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행 및 편집인 하영춘

발행처 (주)한경매거진엔북

발행일 2025년 9월 1일

2025년 9·10월호 제10권 제5호(통권 제74호)

디자인·인쇄 (주)한경매거진엔북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격월간 <TWO CHAIRS>는

(주)한경매거진엔북이 우리은행 PB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COVER STORY

여행의 트렌드가 현지 문화를 좀 더 깊이 있고  
색다르게 즐기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달라진 지역 축제와 함께  
다양해진 지역 관광 콘텐츠가 있다.



ISSN 2672-0663



- 우리금융을 한 곳에 모아 WON MORE
- AI 기술로 WON MORE
- 나 중심 서비스로 WON MORE

더 새로워진 금융생활을 위해  
우리WON은  
**WON MORE**



※ 우리WON뱅킹 앱은 사용자의 AOS/OS 버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우리WON뱅킹 앱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8-5000, 평일 09-18시, 주말/공휴일 제외)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1074(2025.02.07~2026.02.13)



# SPECIAL



## Local Escapes: New Vibe

로컬 여행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독특한 경험과 트렌디한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 역시 특산품 중심에서 벗어나 감각적 콘텐츠와 경험 중심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죠. 새롭게 변화한 로컬 트립의 매력을 탐구해봅니다.



# 로컬이 Pop! Pop!!

요즘 가장 힙한 곳은 알고 보면 다 지방에 있다! 그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신조어도 생겼다. 지금은 지방 전성시대라는 것을 알려주는 다양한 수치와 키워드.

Writer: 유나리 *Illust.* 게티이미지뱅크  
Reference: 한국관광공사 '2025 관광 컨설팅 이슈 발굴',  
컨슈머인사이트 '2025 여행자·현지인의 국내 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

## 로컬리즘

○○○

요즘 관광 트렌드는 유명 관광지만 휘리릭 둘러보고 떠나는 족집게형 관광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더 깊숙하게, 남들과 다르게 체험해보려는 '로컬리즘(Localism)'이 대세다.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올해의 관광 핵심 추세 중 하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으로 '현지 문화 체험'(27.5%)이 '자연경관 여행'(17.3%)을 제치고 1위로 꼽혔을 정도. '지방주의', '지방색', '지역성'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로컬리즘이 지방 소멸화시대의 지역 살리기 대책으로 주목받으며 관광의 성격까지 바꾸고 있는 것.

## 로코노미

○○○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색이 담긴 제품을 소비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말한다. 한국맥도날드가 지역 특산물과 협업해 내놓는 한정판 메뉴인 '한국의 맛'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로코노미 식품을 구매한 적이 있고, 81.4%가 로코노미 식품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 페스티벌 코어

○○○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보다 특정 경험을 소비하며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페스티벌 코어(Festival Core)'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경험을 위해 일상 속 작은 축제를 찾아다니며 이벤트를 즐기는 여가 문화를 뜻한다. 이런 트렌드 덕분에 크고 작은 지역 축제부터 독특한 박람회, 도서전이나 스포츠 관람, 박물관 투어 등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 재래시장

○○○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자와 현지인이 가장 많이 추천한 여행지는 쇼핑몰도, 문화 유물도, 놀이공원이나 온천, 유명 맛집도 아닌 바로 '재래시장'이었다. 컨슈머인사이트의 '2025 여행자·현지인의 국내 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여행 자원은 총 39.1%가 꼽은 '재래시장'으로 나타났다. 2위는 32.4%를 차지한 지역 축제.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장과 축제가 가치 있는 여행 자원으로 꼽혔다는 것은 휴양이 아닌, 지역 체험 위주의 로컬리즘이 여행의 대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다.

## 관광두레

○○○

지역 주민이 만든 진짜 로컬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이 키워드를 확인할 것. '관광두레'는 체험이나 음식, 기념품, 여행, 숙박 등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관광 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사업. 현재 50개 지역에서 193개 주민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울산의 태화강을 방문하는 여름 철새 모양의 쿠키를 구워보는 '울산 여름 철새 베이킹 체험'이나 대구의 고분군을 걷고 불로장에서 먹거리도 먹으며 하루를 보내는 대구 '무덤덤투어', 청도와 영천에서 로컬 와인을 마시며 디저트를 만드는 버스 여행 프로그램 등 믿을 만한 전국 각지의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전국 각지의 관광두레 정보 확인은 물론 예약도 할 수 있다. 📍

## 1,214개

○○○

로컬리즘의 인기를 견인하는 것은 단연 각양각색의 지역 축제들. 지역 축제 수는 2024년 1,170개에서 올해 1,214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루 평균 3.3개의 축제가 지역 어디에선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 95년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는 바로 전북 남원에서 열리는 '춘향제'로 올해 95회째를 맞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인기 또한 높다. 올해 축제엔 145만 명이 찾아 2024년 117만 명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 방문객을 기록하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 1\_고창 청보리밭축제
- 2\_K-드라마 성지이기도 한 수원 화성 및 행궁동 일대는 글로벌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개성 있는 로컬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 3\_하동군은 하동에 숙박하고 지정 관광지 방문, 식당이나 카페 이용 인증, 후기 등을 남기면 여행 경비 일부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하동에 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4\_K-치킨의 명소로 부상 중인 구미의 '교촌 1991 문화거리'
- 5\_농농사와 감수확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창원 빗돌배기마을

# 이제, 로컬 전성시대

충남 찰리 푸스, 김밥천국 없는 김밥 성지 김천...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이 지금 재기 발랄함으로 무장하고 떠오르고 있다.  
 '로컬 힙Local Hip' 트렌드와 함께 부상하는 로컬 전성시대 탐구.

Writer: 유나리 Photo: 각 축제 및 지자체, 한경DB Reference: 한국관광공사<글로벌 관광 트렌드 다이제스트>(Vol. 6-로컬리즘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국토연구원 '국토 정책 브리프-로컬리즘 기반 지역 발전 전략'

로컬리즘 시대를 실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중국 관광객의 관광 스타일 변화다. 젊은 중국 관광객인 '싼커'들은 명동, 강남 등지에서 짝퉁이 쇼핑을 하고, 제주도 단체 관광을 하던 전형적인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 시골 투어를 즐긴다. 특히 관광객이 급증한 곳은 경상남도 지역. 김해공항 베이징 직항 노선이 운항되며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1,700여 명에 불과하던 해당 지역 중국인 관광객은 2022년 2,000명, 2023년 3만6,349명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엔 7만8,255명까지 늘었다. 3년 새 무려 4,500%나 증가한 것이다. 전라북도 고창도 인기 방문지 중 하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폭삭 속았수다> 등의 드라마에 등장한 갯벌·노을·청보리밭 등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중국인 관광객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단순 쇼핑보다는 이색적 경험을 선호하는 흐름과 SNS 파급력 등이 만나 지방이 뜨고 있다.

사 때 이벤트차 거대한 공룡 인형을 준비했는데, 중요한 날마다 비가 와 방문객이 줄어 허탈해하는 공룡 모습을 소셜 계정 'X(옛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이 모습이 소소한 인기를 끌던 중, 한 X 사용자가 다른 친구에게 "요즘 천리포수목원이 흥한다"라고 하자 그 친구가 잘못 알아듣고 "뭐? 찰리푸스모건이 뭐냐"고 되물으며 큰 인기를 끌게 된 것. 이에 정식 이름으로 정해지며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런 귀여운 탄생 비화로 한국 최초의 민간 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은 트렌디한 지역 명소가 됐다. 물론 이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래서 많은 지역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 축제 개최에 집중한다. 특정 지역, 특정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한정판 이벤트를 성격이 강조되며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듯 젊은 층에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이렇게 올 한 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만 1,200여 개가 넘는다.



## 전국은 지금 축제 중

SNS로 흥한 대표적 지역 명물은 일명 '태안의 찰리푸스모건'이다. BTS 정국과 협업한 바로 그 가수 찰리 푸스? (일리는 없지만) 그보다 더 독보적이고 사랑스럽다. 바로 태안 천리포수목원의 마스코트 공룡이다. 이런 독특한 이름을 얻은 이유도 핫하다. 천리포수목원은 어린이날 등의 행

## 이색 경험하러 지방으로 오세요

특히 인기 많은 축제 테마는 먹거리. 지방에서 나는 먹거리를 산지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축제는 모든 계층의 구미를 당기는 공통의 주제이기 때문. 충청남도 금산이나 경상북도 풍기의 인삼, 강원도 화천의 토마토, 전라북도 임실의 임실 치즈, 경기도 안산 대부도 포도 등 고장의 전통적



1. 22년째 열리는 2025 화천 토마토 축제. 토마토 속 황금 반지 찾기 등 이색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올해 폭염에도 12만 명이 찾았다.  
 2. 구미에 있는 농심 라면 공장에서는 전국 1일 라면 소비량의 36%에 달하는 380만 개의 라면을 만든다. 라면 축제를 개최하기 걸맞은 규모로, 많은 이가 방문한다.  
 3.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꼽히는 남원 춘향제 현장

인 먹거리가 곧 주요 축제 주제다.

요즘엔 먹거리 주제도 새로워지는 추세. 별다른 볼거리나 특별한 지역 산물이 없어 '노잼 도시'로 불리던 대전은 빵집 성심당의 인기에 착안해 아예 '빵 축제'를 개최해 대전 여행을 '빵지순례'의 길로 바꿨다. 지난해 14만 명이 찾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경상북도 구미는 한국인의 술 푸드 성지가 되고 있다. 라면, 치킨 등이 이곳의 주요 테마다. 국내 대표 라면 브랜드 공장이 있고, 교촌치킨이 탄생한 도시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공장에서 갓 튀긴 신선한(?) 라면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고, 이색 라면 요리도 먹을 수 있는 '구미라면축제'는 올해 4회째를 맞았다. 또 송정동의 교촌치킨 1호점 인근 500m 구간을 문화 거리로 바꾸고, 낙후한 골목을 재정비해 치킨의 거리로 홍보 중이다.

무맥락, 뜬금없는 축제도 인기다. 경북 김천에서 열린 '김밥축제'도 그중 하나. 지난해 처음 열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말장난에서 시작됐다. 국민 분식점 김밥천국의 줄임말인 '김천'과 경북 김천 지명이 같다는 점에서 착안해 시작된 것. 축제 캐릭터는 김밥 꼬투리를 의미하는

'꼬달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구 13만 명의 작은 도시인 김천의 김밥축제엔 개최 첫해에 1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대히트를 쳤다. '지역 행사=특산물'이라는 오래된 공식에서 과감히 탈피, 성공한 사례로도 꼽힌다.

### 위기의 지방을 살려라

단발성 이벤트인 축제로 일단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것. 일명 '생활 관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런 목적 아래 주민 공동체 기반의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두레' 산업을, 2017년부터는 지역 스토리를 담은 루트를 소개하는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2023년부터는 체류가 더 강조된 '살아보기 생활 관광' 등을 통해 지역을 소개하고 있다. 잘 보존된 함양군의 개평한옥마을에서 머무르며 산삼을 캐는 등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함양 온데이', 여러 곳의 농가에서 머무르며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강진푸소' 등이 성공적 사례로 손꼽힌다. 지자체의 주도에 응답하는 민간의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2023년부터 각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와 문화 인프라를 발굴, 여행 상품으로 변신시킨 '로컬이 신세계'를 진행 중이다. 2023년 광주, 태안, 홍성, 김해 등을 시작으로 올해엔 통영과 안동 지역을 돌았다. 통영 굴·명계 양식장을 찾아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보고, 통영국제음악제에서 임윤찬의 연주를 듣는다. 또 통영 앞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호텔식 럭셔리 관광 열차인 해랑 레일크루즈를 타고 이동하는 등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여행 상품 경쟁률은 평균 400: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렇게 로컬리즘이 인기를 끌고 주목받는 것은 지방이 그간 덜 조명됐기 때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방 소멸 시대'를 논하는, 불균형의 시대를 산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2%가 모여 사는 기형적 구조로 유지된다. 이런 위기 상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로컬리즘이다. 로컬리즘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생적이고 순환적인 일, 거주, 놀이 등의 기반을 갖추게 하는 접근법이다. 이런 접근으로 성공한 사례이자 농촌 여행의 원조가 이탈리아의 아그리투리슴(Agriturismo) 여행법이다. 여행자가 이탈리아 지역 농가에 머무르며 로컬 푸드 생산자를 만나고 농촌을 직접 체험하게 한 것으로,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오늘날 로컬 투어의 원형이다. 이탈리아 전통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규칙을 엄격하게 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유자는 농부여야 하고, 숙박 시설 크기도 제한했다. 아그리투리슴을 상품화해 제공하는 예약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고, 현재 4,500여 개의 지역 농가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성황 중이다. 해당 플랫폼에선 농부의 인터뷰를 비롯해 농가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원하는 여행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오스트리아는 농장 휴가인 '홀리데이온더팜'을 적극 육성했다. 농장에 휴가를 오는 관광객의 60%가 자녀가 있는 가족 관광객임을 파악, 자녀의 농어촌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특히 신경 썼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프로그램에 등록된 7,400여 개 농가는 약 4,2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의 안정적 산업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 홋카이도 동부 쓰루이 마을은 일본 최대 습지이자 두루미 서식지라는 관광자원에 착안해 친환경 산책로를 만들고, 관광객에게 전기 자전거를 무상 대여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돕고, 자녀와 함께하는 워크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로컬 부흥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요즘, 더 많은 축제와 즐길 거리, 머무를 곳이 생겨난다. 이 부흥이 계속 이어지도록, 더 많이 즐기고 경험할 일만 남았다. ☪



덕유산 깊은 산골에서 영화를 보며 한여름 밤의 꿈같은 낭만을 경험할 수 있는 '무주산골영화제' 현장



신세계백화점의 '로컬이 신세계'는 여행 후 해당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미식 다이닝 행사, 식재료 팝업 스토어 등을 열어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 축제로 보는 新로컬 여행 #키워드



각 지자체가 1년을 공들여 준비하는 축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여행 키워드나 다름없다. 지역 축제에 맞춰 여행하면 한층 풍성하고 독특한 지역 문화를 만끽할 수 있을 것. 유서 깊은 전통 축제부터 이목을 집중시킨 신생 축제까지 모았다.

Writer: 한소영 Photo: 각 축제, 한국관광공사, 한경 DB



1. 함평엑스포공원 안 곤충 조형물들  
2. 지난 국향대전 때 조성된 정원의 전경  
3. 국화를 비롯한 색색의 가을 꽃들로 정원을 꾸몄다.

## #Nature #국화 #국향대전 함평국향대전

동글동글 수수하게 생긴 국화는 여러 송이가 바글바글 모여 있어야 훨씬 아름답다. 국화처럼 축제에 어울리는 꽃이 또 있을까? '국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함평이다. 함평은 지난 2004년 국화를 주제로 한 축제 '함평국향대전'을 개최한 이후로 이 축제를 도시의 대표 가을 축제로 만들어 놓았다. 함평에 핀 국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국화를 주제로 한 대형 정원설치작품. 마치 구절판 모양으로 수많은 국화를 가지런히 심은 국화 정원은 정겹고 친근한 맛이 일품이다. 이외에도

현대미술을 방불케 하는 실험적인 국화 작품들이 설치된다. 국화 동호회의 분재 작품 전시도 매회 인기를 모은다. 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에서는 어디에 서든 그림 같은 사진이 찍힌다. 꽃보다는 게임이 좋았던 천방지축 아이들도, 체면치레하는 어른들도 이날만큼은 국화로 뒤덮인 세상에서 무장해제다. 가을 정취 물씬 나는 국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작물 전시·판매, 전통민속놀이 체험,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무대와 체험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체험 활동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국화 방향제 만들기나 국화차 시음, 소망 트리 꾸미기 등 다채롭게 준비된다. 올해는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17일간 개최된다.



1

#Nature #공룡화석 #우항리공룡화석지  
해남공룡대축제

해남공룡박물관은 세계 최초로 물갈퀴 달린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이자, 독특한 고생물 화석지인 우항리공룡화석지와 인접한 곳에 자리한다. 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매년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에 '해남공룡대축제'가 열린다. 화석지에 대한 정보를 흥미롭게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아이들은 마치 영화 <쥬라기 공원> 속에 들어온 듯한 환상적 체험 활동에 빠져든다. 실내 전시실에는 몸길이 9~14m에 몸무게 1톤이 넘는 육식 공룡 알로사우루스 진품 화석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야외에는 21m에 이르는 마멘치사우루스 모형 등 초대형 공룡 설치물뿐 아니라 대형 초식 공룡 발자국 보호각에서 실제 화석도 볼 수 있다. 야외 전시관은 5월이면 노란 유채꽃이 만발해 더욱 아름다우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다. 어린이날 기념식, 공룡 가족 음악회, 공룡 열차 및 놀이터, 공룡 발자국 탐험대를 비롯해 공룡 시대를 상상케 하는 다양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 1\_ 박물관 야외에 자리한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한 초대형 공룡 설치물
- 2\_ 영화 <쥬라기 월드>를 재현해놓은 듯한 박물관 실내
- 3\_ 드넓은 야외 잔디에서 축제를 즐기는 아이들



2



3

#Running #트레일러닝 #장수레이스  
장수트레일레이스

논개 사당인 의암사와 논개 생가가 있어 논개의 기개가 전해 내려오는 전북 장수는 지금 트레일 러닝으로 더 유명하다. 트레일 러닝은 트랙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숲길·산길 등 자연을 달리는 산악 마라톤이다. 장수에 거주하는 트레일 러너가 만든 '장수트레일레이스'는 2022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 제6회 대회가 9월에 열리면서 장수를 다시 한번 들썩이게 할 예정이다. 레이스 도중 드러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러너들을 이곳 장수로 모이게 하는 일등 공신이다. 레이스 코스는 산·숲길·계곡·농촌 마을을 달리며 아름다운 장수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설계됐고, 입문자부터 수준급 트레일 러너를 위한 코스가 단계별로 있다.

지원자는 100M(173km), 100K(100.4km), 38K-J(38.8km), 38K-P(38.7km), 20K(20.1km) 등 다섯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며, 6월에 사전 접수해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선발한다. 극한의 러닝을 사랑하는 이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100M 코스의 면면은 더 충격적이다. 100M 코스는 올해 신설된 국내 최초의 100마일 코스다. 제한 시간만 해도 무려 45시간 30분이며, 거치는 장소를 읊는 데도 숨이 찰 지경이다. 그러니 입문자 코스인 20K 코스 소개로 대신한다. 이 코스도 결코 만만치 않다. 제한 시간 6시간 코스로 무릉고개에서 출발해 장안산, 지실가지마을, 밀목재, 신덕산마을, 논개활공장, 마봉산, 동촌리가야고분군을 돌아 장수종합경기장으로 끝인한다. 해발 1,200m 고지의 무릉고개를 넘는 것이 레이스 초반의 승부처다. 이 대회의 여름 버전인 '쿨밸리 트레일레이스'가 지난 8월에 성황리에 열렸다. 10월 18일에는 반려견과 함께 달리는 이색 트레일레이스인 '제2회 캐니크로스 장수'가 열린다.

- 1,2,3\_ 극한의 트레일 러닝과 장수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코스들. 러너들은 고통스럽겠지만, 사진 속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1



2



3



#Craft #공예 #옹기  
울산옹기축제

매해 5월, 외고산옹기마을에서 열리는 '울산옹기축제'는 국내 유일의 옹기 축제다. 옹기는 진흙만으로 구워낸 질그릇과 오징어를 입혀 김북은 윤이 나는 그릇을 통틀어 일컫는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어 장독 안에 맛있는 장을 두고 1년 내내 먹었다. 축제에서는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했던 옹기를 탐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옹기 장인의 옹기 만들기 시연을 볼 수 있고, 직접 흙을 밟고 옹기를 빚어 구워볼 수도 있다. 옹기축제 퍼레이드, 도봉장수의 옹기 경매 프로그램, '순창장류축제'와 협업한 장류 판매까지 이뤄진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한 듯한 이색 행사다. 이른바 '불멍' 프로그램에서는 마시멜로·감자 등을 구워 먹고, 옹기에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트레비아', '옹기종기' 등 로컬 맥주·막걸리와 함께하는 먹거리 행사가 있어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옹기를 형상화한 흙 놀이터와 폐옹기 공장에서 열리는 전시·참여형 프로그램,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공공 미술 작품 전시 등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고루 갖췄다.

- 1. 울산에서 옹기의 전통을 이어가는 허진규 명인
- 2. 옹기를 주제로 한 축제에서 선보인 다이나믹한 무대 공연의 한 장면



#Farming #농경문화 #벽골제  
김제지평선축제

전통 농경문화를 주제로 개최하는 '김제지평선축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 시설이자, 규모도 가장 큰 김제 벽골제를 중심으로 열린다. 각종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흥미롭지만, 무엇보다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권위 있는 무대 행사가 압권이다. 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대통령배 지평선 전국 농악 경연 대회'는 전국 축제 경연대회 중 유일한 대통령배 경연 대회로, 전국 지역 농악을 대표하는 팀이 참가해 전통 농악의 실력을 견준다. 이 대회는 농악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대통령배로 승격됐다. '벽골제쌍룡놀이'도 장관이다. 벽골제에 얽힌 쌍룡 설화를 바탕으로 상황극 퍼포먼스가 연출되는 화려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김제시 주민들이 참여해 이뤄지는 대표 전통 행사인 '풍년 기원 입석 줄다리기'도 정겨운 모습을 연출한다. 이 외에 소형 아궁이에서 직접 가마솥밥을 지어 먹는 체험인 '아궁이 쌀밥 짓기'나, '지평선 연날리기', '메뚜기 잡기', '벼 베기' 체험 등 우리 농경문화를 알차게 체험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올해 축제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김제시 일대에서 열린다.



- 1. 축제가 열리는 김제 벽골제
- 2. 축제 기간 저녁에는 벽골제 쌍룡광장에서 화려한 불꽃 쇼가 펼쳐진다.





2

- 1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즐기는 강릉의 커피 문화
- 2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는 팥빙수. 커피를 활용한 참신한 메뉴가 커피 애호가들을 즐겁게 한다.

## #Coffee #커피 #커피거리 강릉커피축제

강릉이 커피로 유명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신라 시대 차<sup>차</sup> 문화 유적지인 한송정<sup>寒松亭</sup>이 강릉에 있어 강릉의 물맛이 1,000년 전부터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화랑들이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강릉의 경치를 즐기곤 했다. 강릉은 안목 강릉항에 커피거리가 형성되면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생겨났다. 그 가운데 '강릉커피축제'가 2009년 처음 개최됐다. 강릉에 자생적으로 발달한 커피 명가들과 바다를 마주한 자연적 조건을 활용할 만한 문화 사업을 고민하던 강릉시가 기획한 행사다. 강릉은 카페 투어를 하러 찾아오는 커피 애호가들이 1년 내내 많은 도시다. 바다를 바라보며 갓 볶은 고급 커피를 맛보는 시간, 커피 애호가라면 거부하기 어렵다. 올해도 강릉을 커피 향으로 물들일 축제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강릉시 일대에서 펼쳐진다.



2

- 1 대전 성심당 매장
- 2 성심당에서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 '성심당 샌드위치'

## #Food #빵 #성심당 대전빵축제

대전은 '성심당 보유 도시'라고도 일컫는다. 성심당은 대전이 자랑하는 빵집이지만, 대전보다 성심당이 더 유명할 때도 있다. 대전이 왜 빵으로 유명해진 걸까? 교통의 요지인 이곳은 6·25전쟁 직후 미국 원조 물자가 집중된 도시였다. 특히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밀가루 음식 문화가 뿌리내렸다고 한다. 밀가루를 활용해 식량난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레시피가 탄생했었다. 성심당 같은 빵집이 생겨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열린 '대전빵축제'는 대전 지역 70여 개 빵집 및 전국 유명 빵집이 한자리에 모였고, 10m 대형 빵 커팅 퍼포먼스, 빵들뺄을 울려라 등 빵을 주인공으로 한 이색 행사가 열렸다. 2022년과 2024년 빵 어워즈 1등을 한 빵집 '몽심'은 빵지순례 필수 코스로 떠올랐다. 올해 '대전빵축제'는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다.

## #Food #라면 #치팅데이 구미라면축제

라면 브랜드에는 빠삭한 사람이라도 국내 라면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지역이 경북 구미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벌교 곱막, 청송 사과처럼 '구미 라면'으로 인스턴트 라면이 팔리는 일은 없으니까. 경북 구미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보적 생산량을 자랑하는 농심 라면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 신라면의 75%, 짜파게티의 95%가 생산된다. '라면의 고장' 구미에서 드디어 라면 자량에 나선 건 2022년부터다. 그해 8월 '구미라면캠핑페스티벌'을 처음 개최했고, 2023년부터는 이름을 지금의 '구미라면축제'로 바꾸고, 개최 일자도 수능 직후인 11월 17일로 옮겼다. 입김이 조금씩 불어나올 정도로 쌀쌀한 계절이지만, 원래 라면은 후후 불어 먹으면 더 맛있으니 축제에 온 사람들 모두 추위는 꽤넘치 않는 모양이다. 구미역 일원에서 열리는 거리형 도심 축제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갓 튀겨낸 라면은 무슨 맛일까? 갓 튀긴 농심 라면 판매와 함께 다양한 부스에서 이색 라면 메뉴를 팔고, 인파가 상당해 몇몇 인기 라면은 대략 40분~1시간 정도 대기해야 먹을 수 있다고 한다. 긴 젓가락으로 라면 먹기, 라면 수프 맞히기, 로봇이 끓여주는 라면 등 독특하고 흥미로운 행사가 열려 도전적인 관람객을 즐겁게 한다. 라면 관련 굿즈나 구미 수제 라거 등 구미에서 생산한 다양한 특산품과 친해질 수 있는 홍보 부스도 마련되어 있다. 라면의 고장에서 원 없이 라면을 먹어보는 치팅데이를 즐겨보면 어떨까?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다. ☺



축제가 열리는 구미역 일대는 저녁에 더욱 활기가 넘친다.

## 다양한 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긴다 강진하맥축제

강진의 하멜촌맥주는 조선 시대 때 강진에 7년간 머무른 네덜란드 선원 헨드릭 하멜의 이야기에 착안해 개발한 지역 맥주 브랜드다. 강진에서 자란 쌀·귀리와 네덜란드산 맥아를 주원료로 사용해 깔끔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하멜촌맥주를 알리고,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연을 보며 맥주를 즐길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23년부터 시작된 축제가 '강진하맥축제'다. 올해도 여름 막바지인 8월 말 3일간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하멜촌맥주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 맥주, 무알코올 맥주, 수입 맥주 등 다양한 맥주를 입장료만 내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EDM·댄스·밴드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알코올 음료 축제인 만큼 차로 방문하는 것은 어려우니 강진버스여객터미널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셔틀버스는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수시로 운행한다. 지난해 병맥주로 제공한 하멜촌맥주를 올해는 병영양조장에서 생산한 생맥주로 전면 교체해 축제 현장에서 더욱 신선한 맛을 선사했다고 한다.



## 당일 생산한 신선한 맥주를 맛보다 전주가맥축제

한옥마을, 풍년제과, 피순대 등 전주에는 유명한 것이 참 많다. 그중에서도 애주가들의 전주 추억담을 들으면 역시 가맥집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가맥'이란 가게 맥주의 줄임말로,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에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가게에서 만든 간단한 안주를 즐기는 전주 특유의 식문화다. '전주가맥축제'는 이런 전주의 가맥 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여름에 개최한다. 작은 가게에서 소박하게 맥주를 즐기던 문화가 전주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이어진 셈이다. 하이트진로 공장 전주점에서 당일 생산한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축제로도 주목받는다. 전주 현지인이 인정하는 가맥 업소들이 참여해 가맥과 대표 안주를 선보인다는 점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지역 문화 예술인과 인기 가수의 공연 무대가 펼쳐지고, DJ 파티와 불꽃놀이가 축제의 열기를 북돋운다. 지역 상권과 연계한 이벤트로, 행사장에서 받는 팔찌를 착용한 방문객은 전주 효자동 일대 가맥 업소에서 볶기 이벤트,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 당일치기 여행으로 어디를 갈까?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훌쩍 떠나기 좋은 도시, 교통이 편리해 당일치기가 부담 없는 도시, 맛있고 유명한 곳이 많아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도시. 누구나 맘속에 떠오르는 도시가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 당일치기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Writer: 한소영 Photo: 한경 DB

### 이제 트렌드는 다시 해운대 부산

“정작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를 가지 않는다”는 이제 옛말이다. 요즘은 트렌디한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 해운대와 인접해 형성된 ‘해리단길’로 향하고 있다. 해리단길은 해운대역과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뒤편 골목에 아기자기하고 힙한 숨이 모인 길을 말한다. 마치 부산 트렌드의 요약본처럼 자리한 이곳은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제격이다.

#### Start!



#### 10:00 고은사진미술관

국내외 작가들의 사진 작품 전시를 기획하고 선보이는 사진전문미술관이다. 9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강운구 작가의 <우연 또는 필연>전이 열린다.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52번길 16  
🌐 www.goenmuseum.kr



#### 11:00 루프트만션

해리단길에 자리한 소품 숍. 티셔츠, 머그컵, 열쇠고리 등 감각적인 디자인 아이템을 판다. 이곳에서 직접 디자인한 에코백이 가장 인기 품목이다.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로38번가길 12층  
📱 @luft\_mansion



#### 12:00 부산바다샌드

매장에서 갓 구운 비스킷 안에 버터와 꿀을 넣어 만드는 쿠키 샌드 맛이 일품이다. 브랜드에서 만든 맥주, 티셔츠, 수건 등 여행 선물이 될 만한 상품도 많다.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로38번가길 11  
📱 @busan.bada.sand



#### 16:00 사직야구장

부산 하면 사직야구장!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으로, 구장의 명물인 동래라거를 마시면서 롯데 홈 팬들이 ‘부산 갈매기’를 목청 높여 부르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다.

📍 부산시 동래구 사직로 55-32



#### 14:00 지그재그아트센터

지난 6월 해운대 엘시티에 개관한 지그재그아트센터는 1958년 이후 신사실주의 경향의 작품을 선보이는 <지그재그컬렉션 1958-2025>전을 12월 31일까지 연다.

📍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포디움동 1001호  
🌐 www.zigzagartcenter.com

#### Another Route!



#### 해운대스카이캡슐

요즘 부산 오는 이들이 꼭 탄다는 미니 기차. 30여 분간 2km를 달리며 해운대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일행끼리만 탑승하므로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원하는 시간에 타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116 청사포정거장  
📱 @bluelinepark



#### 타이가텐푸라

계란, 가지, 느타리버섯, 새우 등 밥 위에 쏟아질 듯 풍성하게 튀김을 얹은 텐푸라 맛집이다. 속 재료는 신선하고, 튀김옷은 얇고 바삭해 느끼하지 않다. 짭조름하면

서도 달콤한 특제 소스도 인상적이다.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1로38번가길 15  
📱 @atiga\_kor

## 만화처럼 판타스틱한 부천

‘부천국제만화축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리는 도시 부천은 만화의 도시이자 문화의 도시로 일컫는다. 서울에서는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신중동역에서 내리면 곧바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역에서 내리면 빼곡한 아파트 풍경이 여느 도시와 비슷한 듯 보여도, 곧 부천의 다양한 매력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 Start!



#### 09:00 무화과식당

좋은 여행의 시작은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제철 과일과 채소를 활용한 요리로 정성 가득히 차린 조식 뷔페식당인 무화과식당은 부천 여행의 좋은 시작점이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38번길 2  
☞ @kitchen\_fig



#### 10:00 그리즐리

작은 카페지만 부천 지역에서 커피로 배달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나라별 원두를 드립백으로도 판매한다. 여행 선물로도 제격이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62번길 38  
☞ @grizzlycoffee\_official



#### 11:00 부천아트벙커B39

1990년대 부천의 쓰레기를 처리하던 쓰레기 소각장이 웅장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쓰레기를 쌓아두던 벙커는 그 높이가 39m나 된다. 기획 전시뿐 아니라, 응축수 탱크, 배기가스 처리장 등 특수 기계 설비도 관람할 수 있다.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53  
☞ @artbunkerb39



#### 15:00 부천만화박물관

부천은 우리나라의 첫 만화 축제를 개최한 도시다. 박물관에서는 최초의 한국 만화부터 순정만화, 웹툰에 이르기까지, ‘돌리’부터 ‘언플러그드 보이’, ‘이말년’까지 우리나라 만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 @comicsmuseum\_kr



#### 13:00 복성원

감칠맛 나는 간짜장에서 1983년 문을 열고 40여 년간 장사한 엄청난 내공이 느껴진다. 간짜장 외에 잡채밥, 고기튀김도 이곳의 대표 메뉴다. 매콤한 열무김치도 맛있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22번길 16  
☎ 032-611-4278

### Another Route!



####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희귀한 열대식물이 많아 구경하면서 산책하기 좋은 식물원이다. 2층에는 카페가 있어 식물원 전경을 내려다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6 상동호수공원 안  
☎ 032-327-5777



#### 젤라메리아 여름

이곳의 쫄깃한 젤라토는 밀도 높은 질감과 진하게 농축된 원재료 맛이 특징이다. 계절마다 새로운 맛을 선보인다. 가격은 한 컵에 5,000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43 필레오파크  
☞ @yeoreum.143

## 맛과 낭만의 새로운 기록 대구

원래 ‘식도락 여행’ 하면 손맛 좋다고 소문난 남도를 떠올리지만, 요즘 맛의 도시로 떠오르는 건 바로 대구다. 치킨, 카페 등 많은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대구에 있다는 것이 단서. 또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주목해야 할 루트는 삼덕동과 동성로다. 삼덕동과 동성로에는 개성 넘치는 자그마한 카페와 식당, 서점 등이 모여 있다. 요즘의 맛, 요즘의 트렌드를 느끼고 싶다면 이곳으로!

### Start!



#### 11:00 몬도카츠

두툽한 등심을 솥으로 훈연하고, 한 입 크기의 김밥을 곁들여 내는 독특한 돈카츠집이다. 바삭하게 튀긴 뒤 지리산 참숯 위에서 훈연 작업을 거친 돈카츠는 불 향이 배어 독특한 풍미를 낸다.

☞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445길 26-18  
☞ @mondokatsu



#### 14:00 홀리데이비지터샵

번화가 구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품 쇼핑. 이곳은 각종 팬시, 소품뿐 아니라 슈로고를 새긴 키링, 모자, 가방 등 자체 디자인 상품도 판다. LP와 엽서까지 구비해 레트로 감성도 엿보인다.

☞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184  
☞ @holidayvisitor



#### 15:00 간송미술관

신사임당, 정선, 김홍도, 신윤복. 간송 전형필 선생이 수집한 우리나라 미술사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다. 거장들의 작품뿐 아니라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는 간송 선생의 문화 보국(保國)의 이념까지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다.

☞ 대구시 수성구 미술관로 70  
☞ kansong.org/daegu



#### 19:00 녹향몽티기

대구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으로 꼽히는 ‘몽티기’. 몽티기는 고기를 몽텅하게 썰어낸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신선한 소고기를 생으로 즐기는 대구의 향토 음식이다. 이곳은 현지 주민들이 많이 찾는 현지인 맛집. 우둔살과 함께 차돌박이 회도 맛볼 수 있다.

☞ 대구시 중구 종로 43



#### 18:00 책빵고스란히

서점과 카페가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 서점에 꽂힌 책들은 주로 식생활과 기후, 동물, 인권 등을 다룬다. 카페에서는 비건 재료로 만든 샌드위치와 수프, 먹거리를 판매한다.

☞ 대구시 중구 국제보성로150길 65-3  
☞ @gosranhi\_breadbook

### Another Route!



####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바로 옆에 위치한 대구미술관에서는 근현대 회화부터 현대 예술까지 폭넓은 장르를 다룬다. 현재 기획 전시로는 도시의 이면을 보여주는

사진작가 장용근의 <장용근의 폴더: 가장자리의 기록>이 열리고 있다.  
☞ 대구시 수성구 미술관로 40 ☞ daequaretmuseum.or.kr



#### 하이마트음악감상실

1990년대 경양식집을 연상케 하는 레트로한 공간에서 DJ가 선곡하는 음악을 감상하며 차를 즐길 수 있는 곳. 아바ABBA, 윤상, 검정치마, 산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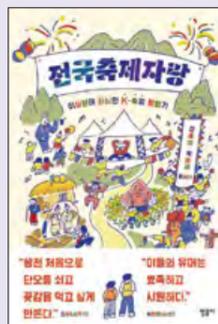
카더가든,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들이 연이어 흘러나온다. ☎  
☞ 대구시 중구 동성로6길 45 ☎ 053-425-3943

# 로컬 갈 때 이거 어때?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문제없다.  
가볍게 훌연히 로컬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참고할 것.  
루트부터 이동까지 도와줄 각종 로컬 여행 도우미를 모았다.

Writer: 유나리 Photo: 각 출판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경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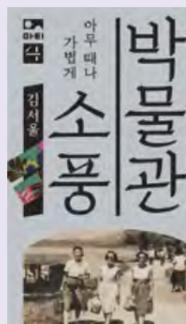
## 어디로 가지? 아직 행선지를 못 골랐다면



### 〈전국축제자랑〉

김흥비·박태하 지음, 민음사 펴냄

에세이스트 김흥비·박태하가 직접 발품 팔아 떠나고 쓴 대한민국 축제 탐방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제주도 등 조금이라도 큰 도시는 제외한 전국 12곳의 축제를 소개한다. 책은 단순히 축제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쇠락한 지역을 위해 분투하고, 조금 촌스럽지만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하는 관람객의 아름다운 양상들을 담았다. 축제를 탐험하며 만난 다양한 사람을 관찰한 저자들의 웃기고 푸근하며 상쾌한 여행기를 따라 배꼽을 잡다 보면 문득 마음에 꽂히는 행선지를 찾지도 모른다.



### 〈박물관 소풍-아무 때나 가볍게〉

김서울 지음, 마티 펴냄

계절에 상관없이 찾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박물관이다. 전국 각지의 괜찮은 박물관을 찾아 여행을 가는 것도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다. '아무 때나 가볍게'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이 책은 전국 각지의 가볼 만한 무료입장 박물관과 관람 포인트, 박물관 주변의 가볼 곳과 먹거리까지 아무지게 알려주는 작지만 알찬 책. 박물관 애용자이자 전통 회화 전공자, 문화재 보존 처리 전문가인 저자가 박물관과 유물을 풍성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어렵지 않게 담아 박물관 입문서로도 손색없다.



### 〈여기가려고 주말을 기다렸어〉 시리즈

주말토리 지음, 빅피시 펴냄

국내 대표 여행 뉴스레터 서비스인 '주말토리'가 소개한 국내 여행 코스를 수록한 책. 기분과 취향에 따라 떠날 수 있는 국내 로컬 힙 여행지 300곳을 수록한 〈여기가려고 주말을 기다렸어〉와 당일치기 코스만 수록한 〈여기가려고 주말을 기다렸어: 원데이 코스〉가 있으니 일정에 따라 참고하자. 여행의 목적과 기분에 따라 장소를 나누고, 테마에 따라 최적의 동선으로 해당 지역을 알차게 둘러볼 수 있게 돕는다. 코스에 포함된 장소 외에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참고하면 좋은 플랜 B 코스까지 알려주니 일단 떠나볼 것.

## 뚜벅이라도 괜찮아, 이동수단 고민 끝!



### 티머니GO 관광택시

택시를 타고 관광하던 옛날 스타일 여행법이 다시 돌아왔다. 티머니의 '티머니GO'에서 관광택시를, '카카오톡' 앱에서는 시티투어를 예약·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숨은 맛집이나 명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운전사와 함께 제대로 즐겨보자.

이용하기 티머니GO 앱 → '여행/생활' → '관광택시'  
카카오톡 앱 → '여행' → '시티투어'



### 쏘카

차가 없는 사람이 지방 여행을 꺼렸다면 쏘카를 활용해보자. 전국 각지에 5,000여 개의 쏘카 존이 있어 뚜벅이의 발이 되어준다. 앱에서 코레일과 묶어서 예약하면 최대 40%의 할인 혜택은 물론, KTX 승차권 결제액의 10%를 쏘카 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으로 지급한다. [www.socar.kr](http://www.socar.kr)

## 여행 가이드 앱으로 깊이 더하기



### 오디오가이드 오디

지역 명소에 얽힌 역사와 일화 등을 알고 돌아보면 지역에 대한 감회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오디'는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대한민국 관광지의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디오 가이드 앱. 문화, 미식, 관광지 등 주제에 걸맞은 풍성한 일화를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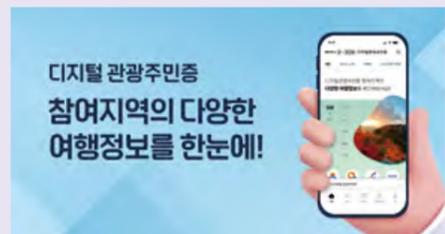
## 지역 정했으면 할인 챙기기



### '농촌투어패스' 활용하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매하는 여행 할인 패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33개 지역 내 교통, 100여 개 농촌 체험 프로그램, 관광지 입장, 식음 시설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가려고 하는 지역의 패스를 발급받으면 24시간 동안 제휴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장점은 교통비 할인. 패스를 사면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는 KTX 열차운임을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 내에서 버스비 등도 할인해준다.

구입하기 코레일, 티머니GO,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농촌투어패스' 검색 후 여행하려는 지역의 패스 구입



###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받기

특정 지역을 여행할 때 현지 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 서비스. 한국관광공사가 인구 감소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전자 증명서다. 방문하려는 지역의 유명 관광지 입장료나 체험료 할인, 음식점이나 카페 등 식음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나 앱, 티맵 내비게이션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기 투어원패스(또는 티맵) 로그인 → '대한민국 구석구석' 회원 가입 → 본인 인증 후 관광주민증 발급

# WOORI BANK GLOBAL NETWORK



● 해외 지점
 ● 현지 법인
 ● 사무소

## 해외 지점

- |  |   |   |
|--|---|---|
| <p><b>뉴욕지점</b><br/>TEL 1-212-949-1900<br/>FAX 1-212-490-7146<br/>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p> <p><b>LA지점</b><br/>TEL 1-213-620-0747-8<br/>FAX 1-213-627-5438<br/>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p> <p><b>런던지점</b><br/>TEL 44-207-680-0680<br/>FAX 44-207-481-8044<br/>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BR, UK</p> <p><b>동경지점</b><br/>TEL 81-3-6891-5600<br/>FAX 81-3-6891-2457<br/>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p> <p><b>홍콩지점</b><br/>TEL 85-2-2521-8016<br/>FAX 85-2-2526-7458<br/>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p> <p><b>싱가폴지점</b><br/>TEL 65-6223-5854-6<br/>FAX 65-6422-2000<br/>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p> | <p><b>바레인지점</b><br/>TEL 973-17-223503<br/>FAX 973-17-224429<br/>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p> <p><b>다카지점</b><br/>TEL 88-02-5881-3270-3<br/>FAX 88-02-5881-3241/3274<br/>ADD Suvastu Imam Square (1st &amp;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p> <p><b>구르가온지점</b><br/>TEL 91-12-4304-6700<br/>FAX 91-12-4304-6730<br/>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p> <p><b>첸나이지점</b><br/>TEL 91-44-3346-6900<br/>FAX 91-44-3346-6995<br/>ADD Lotte India, 2nd Floor, No.4/169, Rajiv Gandhi Salai(OMR), Kandhanchavadi, Perungudi Taluk, Chennai-600096, Tamil Nadu, India</p> <p><b>몰바이지점</b><br/>TEL 91-22-6263-8100<br/>FAX 91-22-6263-8198<br/>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p> | <p><b>시드니지점</b><br/>TEL 61-2-8222-2200<br/>FAX 61-2-8222-2299<br/>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p> <p><b>두바이지점</b><br/>TEL 971-4-325-8365<br/>TEL 971-4-325-8366<br/>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p> |
|--|---|---|

## 현지 법인

- |  |   |   |
|--|---|---|
| <p><b>유럽우리은행</b><br/>TEL +49(0)69 299 254 0<br/>FAX +49(0)69 299 254 099<br/>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p> <p><b>러시아우리은행</b><br/>TEL 7-495-783-9787<br/>FAX 7-495-783-9788<br/>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p> <p><b>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b><br/>TEL 62-21-5087-1906<br/>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p> <p><b>캄보디아우리은행</b><br/>TEL +855 23 963 333<br/>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p> <p><b>팔라렐푸르사무소</b><br/>TEL 60-3-2163-8288<br/>FAX 60-3-2163-9288<br/>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p> | <p><b>우리파이낸스 미얀마</b><br/>TEL 95-01-643798<br/>ADD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p> <p><b>베트남우리은행</b><br/>TEL 84-4-7300-6802<br/>FAX 84-4-7300-6806<br/>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p> <p><b>브라질우리은행</b><br/>TEL 55-11-2309-4740<br/>FAX 55-11-3511-3300<br/>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p> <p><b>홍콩우리투자은행</b><br/>TEL 852-3763-0888<br/>FAX 852-3763-0808<br/>ADD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p> <p><b>양곤사무소</b><br/>TEL 95-01-646951<br/>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p> | <p><b>우리엘스뱅크 필리핀</b><br/>TEL 63-32-415-5265<br/>FAX 63-32-415-5266<br/>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p> <p><b>중국우리은행</b><br/>TEL 86-10-8412-3000<br/>FAX 86-10-8440-0698<br/>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p> <p><b>우리아메리카은행</b><br/>TEL 1-212-244-3000<br/>FAX 1-212-736-5929<br/>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p> <p><b>폴란드사무소</b><br/>TEL 48-323-07-6417<br/>ADD Uniwersytecka 13, 40-007, Katowice, Poland</p> |
|--|---|---|

## 사무소

# L I F E &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황금빛 도시

# Luang Prabang

## 라오스 루앙프라방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전통 양식과 프랑스 식민지풍 건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다. 아침마다 승려들의 탁발 행렬이 이어지고, 밤이 되면 화려한 불빛과 함께 활기를 띠는 야시장이 문을 연다. 다채로운 매력으로 가득한 루앙프라방으로 안내한다.

Writer: 두경아 Photo: Tourism Luang Prabang, 케티이미지뱅크

라오스의 옛 수도 루앙프라방



신비로운 루앙프라방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북부, 메콩강과 남칸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역사 깊은 도시이자 라오스의 옛 수도다. 오랜 세월 이어온 전통과 문화 덕분에 곳곳에 역사 유적과 옛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볼거리가 풍부하다.

‘왕실 부처상’이라는 뜻의 지명 그대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정교한 불교 사원이 모여 있는 곳이다. 매일 아침이면 주황빛 승복의 탁발승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도시 전역에 흩어진 30여 개 사원은 18세기 수도였던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루앙프라방 구시가지는 도시의 심장부로, 고대 사원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좁은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골목 곳곳에는 라오스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카페,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늘어서 있다. 해가 지면 야시장이 불을 밝히고,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역 특산품을 둘러보고,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루앙프라방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건기로, 그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바로 ‘분 라이 흐아 파이<sup>Boun Lai Heua Fai</sup>’다. ‘불배 축제’라는 뜻의 이 축제는 나가<sup>Naga</sup>라 부르는 물의 정령에게 행운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다. 주민들은 화려한 등으로 장식한 배를 만들어 행진하고, 밤이 되면 그 배를 강에 띄워 정령에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른다. 불운을 막고 물의 정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강에 꽃을 뿌리기도 한다. 이날만큼은 루앙프라방 전체가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된다. 시장과 사원 주변에는 전통 음식과 기념품을 파는 노점으로 북적이고, 메콩강 변은 불빛을 감상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시사방봉왕 시대에 건립된 궁전으로, 현재는 국립박물관으로 사용한다.



1

##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이자 옛 왕실 궁전 국립박물관 하우캄 Haw Kham

‘하우캄’이라 일컫는 왕실 궁전 Royal Palace 은 1904년, 시사방봉 Sisavang Vong 왕 시대에 건립됐다. 라오스와 프랑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기 위해 건립한 이 궁전은 프랑스의 보자르 Beaux-arts 양식과 라오스 전통 건축 요소를 결합해 우아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지금의 모습은 시사방봉왕 서거 후에는 그의 아들 시사방와타나 Sisavang Wathana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그러나 1975년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왕위는 계승되지 못했고,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지금은 루앙프라방 국립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궁전 내부에는 불상, 왕실 의상, 예술 작품을 포함한 역사·문화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높이 83cm의 불상인 프라방이 가장 유명하다. 전시 하이라이트는 왕 의자와 왕실의 보석을 전시하는 왕좌실이며, 궁내 왕의 차고에는 링컨 콘티넨탈, 시트로엥 등 당시 왕이 사용하던 여러 올드카도 보관되어 있다.

## 황금의 도시 사원 왓 시엥통 Wat Xiengthong

루앙프라방 반도의 북쪽 끝에 자리한 ‘왓 시엥통’은 이름 그대로 황금 도시의 사원을 뜻한다. 1560년경, 세타티랏 Sethathirath 왕이 세운 이래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 중 하나로 꼽히며, 종교·왕실·전통 예술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로 남아 있다. 본당은 아홉 겹 지붕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내려앉는 독특한 형태로, 금빛 스텐실 장식이 외벽과 내부를 가득 채운다. 내부의 진한 붉은색과 검은색 벽면에는 신화 속 장면과 기하학무늬가 금빛으로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불교의 가르침과 윤회의 순환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본당 뒤쪽에는 사원 건립 시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희귀한 와불상이 있는 ‘와불 전각’이 있으며, 넓은 사원 부지 안에는 승려 숙소 ‘쿠티 Kouti’, 경전 보관소 ‘호타이 Ho Tai’, 보관 창고 ‘호르콩 Hor Kong’ 등 다양한 건물과 부속 신전이 자리한다.

1. 아홉 겹 지붕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내려앉는 독특한 형태의 왓 시엥통 본당
2. 본당 뒤쪽 작은 법당을 장식하는 모자이크 문양



2



1

## 루앙프라방을 한눈에 담은 전망 명소 푸시산 Phou Si Mountain

‘푸시산’은 루앙프라방 구시가지 중심에 자리한 해발 약 100m의 언덕이다. 반도 형태의 구시가지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으며, 한쪽에는 메콩강, 다른 한쪽에는 남칸강이 흐른다. 이곳은 지역의 중요한 종교 성지이기도 해 산길 곳곳에서 불교 사원과 불상을 만날 수 있다.

정상까지 가려면 328개 계단을 올라야 하지만, 길목마다 작은 사원과 경관 포인트가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산 중턱에는 사원인 왓탐푸시<sup>Wat Tham Phou Si</sup>가 있다. 이곳에는 ‘부처의 발자국’과 불상 등 소소한 볼거리가 있다. 정상에는 도시와 주변 시골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불교 사원 왓츄시<sup>Wat Chom Si</sup>가 자리한다. 높이 20m 탑이 우뚝 솟아 있는 이 사원에서는 도시 전경과 메콩강의 탁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해 질 무렵 매력이 배가된다. 노을과 함께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다.



2

##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연 폭포 관시 폭포 Kuang Si Waterfall

라오스는 동남아에서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나라로 꼽히며, 그중 루앙프라방은 산과 울창한 열대우림으로 둘러싸인 환상적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루앙프라방에서 약 2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관시 폭포’는 라오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 중 하나로 꼽히는 명소다. 계단식으로 형성된 폭포와 신비로운 푸른빛 맑은 계곡물은 환상적 풍경을 자아낸다. 계곡물은 계절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건기에는 구리 등 미네랄 성분의 영향으로 에메랄드빛을 띠고, 우기에는 짙은 초록색으로 바뀐다. 폭포 아래에서는 수영을 즐길 수 있지만, 비키니나 노출이 심한 수영복은 착용할 수 없다.

인근에는 곰 보호구역도 있어 함께 돌아보기 좋다. 이곳은 밀렵으로부터 아시아 흑곰을 보호하는 곳으로, 방문객은 기부나 기념품 구매를 통해 보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1 푸시산 정상에 우뚝 솟은 왓츄시  
2,3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컬러의 관시 폭포

## 전통 음식과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장터 루앙프라방 야시장

해가 지면 시사방봉 거리를 따라 왕궁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길에 화려한 야시장이 열린다.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공예품과 지역 특산품, 전통 음식 등을 판매하는 노점들이 거리를 따라 들어서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수공예품은 직물과 켈트, 도자기, 골동품, 그림, 커피와 차, 신발, 은 제품, 가방, 장식품 등 다양하다. 특히 라오스 소수민족 공족이 만든 수공예품이 많다.

먹거리는 더욱 풍성하다. 라오스 찹쌀밥, 구운 닭고기<sup>Ping Kai</sup>, 쌀국수<sup>Khausoy</sup> 등 전통 음식은 물론 쌀가루·코코넛·설탕으로 만든 코코넛 팬케이크<sup>Ka Nom Krok</sup>, 프렌치 바게트까지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야시장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열리며, 이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1 야시장에서는 소수민족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만날 수 있다.

2 야시장은 시사방봉 거리를 따라 왕궁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길에 들어선다.



1

2



## 보트 빌려 누비는 현지인 체험 슬로 보트, 리버 크루즈

메콩강은 수 세기 동안 루앙프라방의 주요 교통로이자 무역로로, 라오스 중심부를 따라 사람과 물자가 오가던 길이었다. 오늘날에도 강 위의 보트 교통은 활발하며, 관광객도 보트를 빌려 강을 누비는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보트를 타고만 갈 수 있는 맛새 폭포나 탐팅 동굴로 향하거나 강 건너 촌땃 지역에서 루앙프라방 전경을 내려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특히 탐팅 동굴은 수백 개의 작은 목제 불상이 모셔진 동굴 사원으로, 인기 있는 보트 투어 코스로 꼽힌다. 낭만적이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리버 크루즈'를 추천한다. 메콩강과 남칸강을 오가는 크루즈는 선상에서 숙박하는 럭셔리 크루즈부터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갖추고 있다. ●



루앙프라방에서는 보트나 크루즈를 타고 주요 명소를 돌아보는 투어가 인기가 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루앙프라방은 전통 라오스 건축과 19~20세기 유럽 식민지 시기의 건축이 절묘하게 융합된 도시다. 종교 건축의 정교한 양식, 전통 민가 건축, 식민지 시대 건축이 조화를 이뤄 독특하고도 잘 보존된 도시경관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경관은 두 문화의 전통이 만난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보존 상태 역시 훌륭하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루앙프라방 도시 전체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 루앙프라방까지 어떻게 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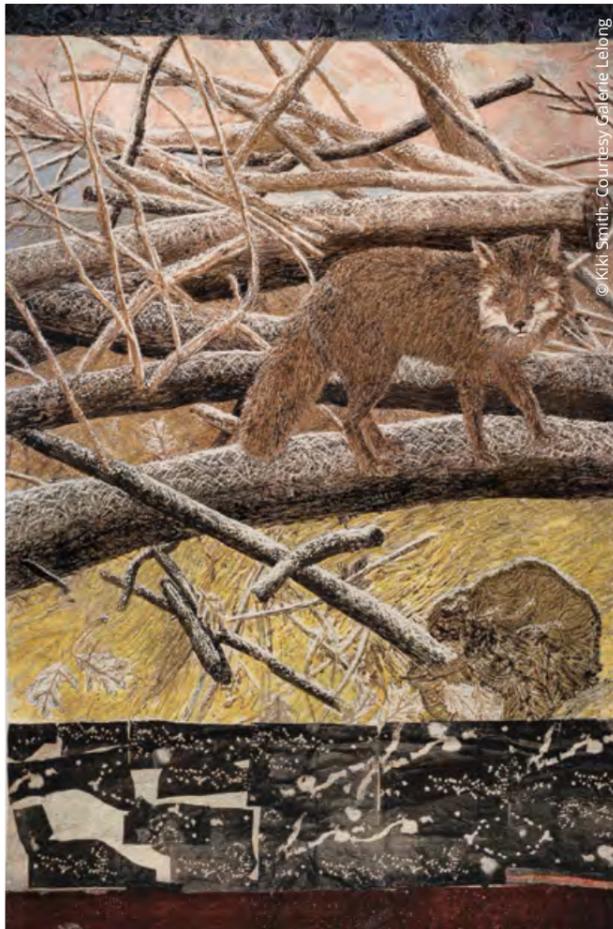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대신 방콕이나 하노이, 비엔티안,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를 경유해야 한다. 이중 가장 편리한 방법은 대한항공을 이용해 방콕으로 이동한 뒤, 방콕에서 루앙프라방행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것이다. 이때 비행기 환승 시간이 길다면 방콕에서 하루쯤 머물다 가도 좋다. 루앙프라방 공항은 시내에서 차로 15분 거리(4~5km)에 있어 접근성은 좋은 편이다.



라오스 전통 양식과 프랑스 식민지풍 건축을 볼 수 있는 루앙프라방 거리



아침마다 승려들의 탁발 행렬이 이어진다.



Kiki Smith, 'Sojourn', cotton jacquard tapestry, Edition of 10 + 2AP  
294.5×190.7cm, 2015



Jadé Fadojutimi, 'SMOG: Subtle Moments of Grief', acrylic, oil, oil pastel  
and oil bar on canvas, 250×175cm, 2025

## 아트로 시작하는 서울의 가을 FRIEZE × KIAF 미리 보기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프리즈 서울과 제24회 KIAF 서울로 9월의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아트위크를 치를 예정이다. 서울에서 만나는 거장의 작품과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모처럼 아트 시장이 활기를 띤다. 놓치지 말아야 할 프리즈 서울과 KIAF 서울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한다.

Writer: 김보라 <아르떼> 매거진 편집장

9월 첫 주, 서울은 전 세계 미술의 중심이다. 4년 차를 맞이한 '프리즈 서울 Frieze Seoul'의 열기는 올해도 뜨겁다. 세계 미술계에 드리운 불황의 그림자가 무색할 정도다. 같은 기간에 열리는 한국화랑협회의 '한국국제아트페어 KIAF'는 주목할 만한 아시아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올해 아트 위크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매력적인 부대 행사를 정리했다.

### 프리즈 서울에서 만나는 거장들의 작품

프리즈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 작품을 사고파는 미술 장터지만, 거장들의 작품을 한곳에서 감상하는 건 아트 페어를 찾는 관객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유수의 갤러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들고 나왔다. 타데우스 로팍은 독일 신표현주의 거장 게오르크 바젤리츠를, 리슨 갤러리는 아니시 카푸어를, 에스 더쉬퍼는 우고 론디노네를 간판으로 내세웠다. 세계 최대 갤러리인 가고시안 부스는 일본 스타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으로 채운다. 다만 이 같은 고가 작품 출품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참가 갤러리 라인업만 봐도 알 수 있다. 플라 쿠퍼 갤러리, 로빌란트 보에나, 새디콜스 HQ 등 지난해 참가한 강력한 갤러리가 여럿 빠져나갔다. 미술 시장 불황으로 갤러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참가하는 아트 페어를 줄인 게 이유다. 지난해 프리즈에 나온 블럼앤포, 페레스프로젝트는 폐업으로 올해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볼거리는 충분하다. 한국에서는 아직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세계시장에서 각광받는 작가들을 주목할 만하다. 페이스 갤러리는 미국 추상표현주의 예술가 아돌프 고틀리브의 작품을 소개한다. 아팔라초 갤러리는 가나 출신 작가 이브라힘 마하마의 작품을, 스푸르스 마거스는 미국 미니멀리즘 조각가인 로버트 모리스의 작품을 들여왔다.

한국 갤러리가 30곳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눈 밝은 컬렉터들이 즐겨 찾는 젊고 의욕적인 국내 갤러리가 대거 합류했다. 디스위켄드룸, 이유진갤러리, 상하움, 갤러리



Guan Xiao, 'The Rising Torch', brass, acrylic, and motorcycle parts,  
83×63×98-100cm, 2023

BHAK가 대표적이다.

프리즈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시도 중요한 볼거리다. 프리즈 서울이 뛰어난 신진 및 중견 작가를 선발해 상을 주고, 작품을 소개하는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가 대표적이다. 2023년 선발된 우한나 작가, 2024년 최고은 작가 등은 이 상을 받은 후 국내외 미술계에서 존재감이 커졌다. 올해 세 번째 수상자로는 임영주 작가가 뽑혔다. 아트 페어에 전시되는 수상작 'Calming Signal'은 리서치 기반의 3채널 영상 설치 작품이다. 프리즈 서울 관계자는 "현대 사회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독창적 영상으로 풀어낸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행사장 곳곳에서 세계적 작가



© Photography: Damian Griffiths

Marius Steiger, 'Three Chairs (Spine)', oil and acrylic on linen, 180×155×4.5cm, 2025

들의 설치 작업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경원과 전준호의 신작은 아트 페어 기간 동안 그 모습을 바꾸며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리엄 길릭은 컬러 플렉시글라스와 벤치를 활용한 설치 작업으로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 서울을 물들이는 장외 행사

미술 애호가들이 아트 페어 본행사만큼이나 손꼽아 기다리는 건 서울 전역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예술 행사다. '프리즈 라이브'는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예술 퍼포먼스다. 전

시장에 설치된 정적인 작품이 아닌, 아티스트와 호흡하며 살아 움직이는 작품의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다. 올해 주요 퍼포먼스는 아트선재센터가 기획해 선보이는 <오프사이트> 전시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3일에는 신사동 도산공원에서 아티스트 그룹 야광의 언어·신체·노래 퍼포먼스 '날것의 증거: 예코'가 펼쳐진다. 다음 날인 4일은 <오프사이트> 전시가 열리고 있는 소격동 국제갤러리 k2에서 장영해가, 5일은 같은 장소에서 루킴이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6일에는 안국동 투게더투게더에서 하지민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현대미술과 미술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토크 프로그램도 놓쳐서는 안 된다. 프리즈 서울과 KIAF,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리즈 토크' 프로그램은 지금 세계 미술계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토론하는 자리다. 4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진행된다. 이용우 홍콩 중문대 큐레이터 겸 조교수, 김선정 아트선재센터 예술감독, 아드리안 비야르 로하스 작가, 김아영 작가, 가타오키 마미 모리미술관장과 윤율리 일민미술관 학예팀장 등 국내외 주요 미술계 인사들이 마이크를 잡는다.

## 야간 전시 감상하고 칵테일파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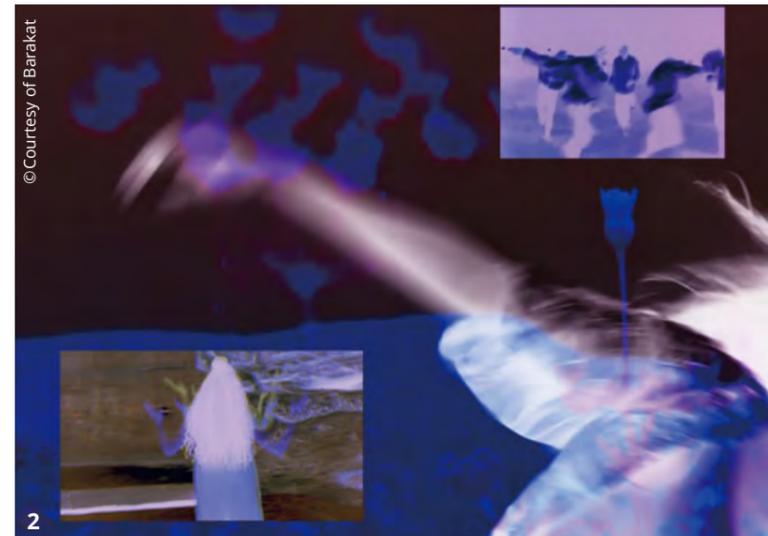
을지로, 한남, 청담, 삼청동의 미술관·갤러리들은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다.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을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가 걸작들을 감상하는 기분은 각별하다.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공간도 있어 즐거움과 예술적 감흥은 배가된다. 1일에는 전초전 성격으로 을지로 권역의 예술 공간들을 돌아볼 수 있다. 양혜규 스튜디오를 필두로 한 비영리 예술 공간과 작가들이 운영하는 예술 공간을 주목할 만하다. 다음 날인 2일에는 한남동에서 '한남 나잇' 행사가 열린다. 리움미술관을 필두로 리만머핀, 에스더쉬퍼, 타데우스 로팍, 두아트 스퀘이라 등 유명한 해외 화랑들과 가나아트, 갤러리바톤, 디스위켄드룸, 조현화랑, P21, 갤러리 BHAK, 실린더 등 주목받는 국내 화랑들이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다.

3일에 열리는 '청담 나잇'에는 글래드스톤, 화이트큐브, 페로탕, 지갤러리, 갤러리 플래닛, 갤러리 가이아, 갤러리 위, 이유진 갤러리 등이 참여한다. 송은미술관에서 열리는 단체전 '파노라마', 포스코미술관에서 열리는 '포스코 컬처 나잇', 아뜰리에 에르메스의 야간 개장을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청담동은 다른 권역에 비해 전시 공간들 사이의 거리가 먼 편이라 도보로 관람할 때 유의해야 한다. 하이라이트는 한국 미술의 중심지인 삼청동에서 4일에 열리는 '삼청 나잇' 행사다. 전시뿐 아니라 DJ 퍼포먼스, 칵테일파티, 공연 등을 벌이는 곳이 많아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국제갤러리와 갤러리현대를 필두로 학고재갤러리, 바라캇컨템포러리, 백아트, 갤러리조션, 아라리오갤러리, 우손갤러리 등 쟁쟁한 갤러리들이 야간 개방을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예울, 선혜원에서 열리는 전시도 놓치지 말 것.

KIAF-프리즈나 정부 기관과 관계없이 미술계가 개별적으로 여는 행사를 찾아다니는 것도 쓸쓸한 재미다. 한국 미술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미술책을 국내외 방문자 및 애호가에게 소개하는 이색 행사 '후 원츠 투 행아웃 인 서울' Who wants to hangout in Seoul' 이 대표적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삼청 나잇이 열리는 4일 서촌의 예술 공간 버드콜과 서점 더북소사이어티에서 열린다. 초대장이나 입장료는 필요 없다.

## 양보다 질을 택한 KIAF 서울

스물네 번째 KIAF 서울은 9월 3일부터 5일간 이어진다. 국내외 170여 개 갤러리가 컬렉터와 미술 애호가를 매혹할 수천 점의 예술 작품으로 성찬을 차린다. KIAF 서울을 주최하는 한국화랑협회는 아트 페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 10명을 선발해 'KIAF 하이라이트'로 선보인다. 그림을 사고파는 장터를 넘어 재능 있는 작가를 보다 깊이 있게 알고, 성장시키는 예술 담론의 장으로 만들려는 취지다. 올해의 주제는 '공진<sup>共進</sup>'. 작가의 내면에서 출발한 파장이 관람객과 미술계 전반으로 울려 퍼지길 바라는 의미다. ●



1. Anna Park, 'Tell Me More', charcoal, ink, paint, on paper mounted on wood panel, 177.8×213.4×21.1cm, 2025

2. Basel Abbas and Ruanne Abou-Rahme, 'The song is the call and the land is calling', 2025



##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사라지다 〈2025 ACC 포커스-료지 이케다〉

료지 이케다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다시 만났다. 지난 10년간 예술과 기술, 사회와 문화의 융복합에 대한 창의적 실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다.

Writer. 박경희 Photo.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 방대한 과학 데이터를 시청각적으로 풀어낸 'Data-verse'(2019-2020)  
2. 'Data-verse' 데이터를 18개 화면으로 나누고 다시 조합한 'data.gram [n° 8]'(2025)

### 료지 이케다와 동화되는 순간

7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개관 10주년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다. 바로 세계적 사운드 아티스트 료지 이케다Ryoji Ikeda와 함께하는 〈2025 ACC 포커스-료지 이케다〉다. 이번 전시는 료지 이케다가 지난 10년간 구축해온 자신의 창의적 실험 결과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기술과 경계가 사라진 현대에 예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에게도 같은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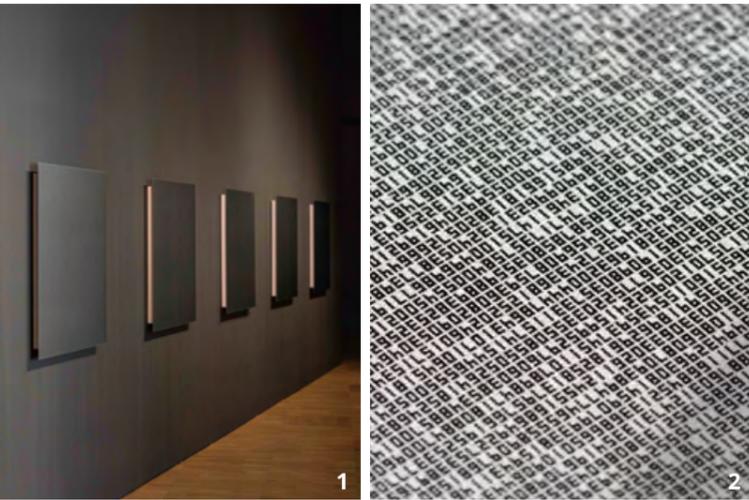
료지 이케다의 작품은 곧 '관객의 작품'이다. 만든 이는 료지 이케다지만, 작품을 해석하는 건 보고 듣는 사람 각자 나름이다. 그의 작품에는 설명이 없어 어두운 공간에서 빛을 내는 작품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전자음만이 관객에게 시청각적으로 전달된다. 작품 설명이 없는 건 료지 이케다가 자신의 작품을 관객 나름대로 해석하길 바라는 의도다. 관객은 자신이 료지 이케다가 되어 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나름대로 상상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2015년 ACC 개관 당시 료지 이케다는 첫 융복합 창작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종 데이터를 흑백의 패턴과 정밀한 전자음으로 변환하는 거대한 설치 예술 'test pattern [n° 8]'(2015)을 ACC에서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ACC의 'ACT'Arts&Creative Technology 페스티벌'에 참여해 오디오 비주얼 콘서트를 펼쳤다.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자신들의 융복합 실험 정신을 되돌아보는 전시의 주인공으로 료지 이케다를 선택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김상욱 ACC 전당장도 "세계적 융복합 예술 기관인 ACC와 사운드 아트 거장인 료지 이케다의 10년이 교차하는 기념비적인 전시"라며, 이번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 철학적 질문을 담은 오디오 비주얼 아트

1966년 일본 기후시에서 출생한 료지 이케다는 1990년대 순음과 백색소음을 결합함으로써 전자음악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그의 전자음악과 데이터에 대한 실험은 소리와 빛, 수학적 구조와 데이터의 반복을 통해 인간 인식의 경계를 탐구하고, 기술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시해왔다. 1996년에 그는 1984년 일본 교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가 모여 실험적 퍼포먼스와 설치



1, 2. 무한 숫자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묻는 'sleeping beauty ( $\pi$ )'(2025)  
3. 바닥에서 울리는 전자음이 관객의 감각을 증폭시키는 'critical mass'(2025)

작업을 선보이는 집단인 덤 타입Dumb Type과 협업하면서 작업 영역을 확장한 후 오디오 비주얼 실시간 렌더링 시스템과 고유의 알고리즘을 구축해 독창적인 작업 기반을 만들었다.

기술과 데이터를 고도화시키면서 데이터 미학 및 오디오 비주얼 아트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 위치에 오르며 세계적인 사운드 아티스트로 성장한 그는 '2012 ZKM 기가헤르츠 어워드' 사운드 아트 분야, '2014~2015 프리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어워드' 레지던시 분야, '2019 일본 문부과학성 예술 신예 작가상' 미디어 아트 분야 외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개인전 57회, 그룹전 134회를 진행하면서 그의 작품 속 기술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들을 여러 사람과 공유했다.

특히 2015년 ACC 개관과 함께 선보인 'test pattern [n° 8]'(2015)은 텍스트, 사운드, 영상, 사진 등 일상 속 데이터들을 초당 수백 프레임의 흑백 바코드로 시각화하고, 신체를 울리는 전자음과 함께 선보인 작품이었다. 8개 DLP 프로젝터와 16개 스피커로 구성된 11m 스크린에서 관객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이미지와 전자음으로 인한 혼란을 경험하고, 기술에 대한 무력감과 감각의 한계를 마주했다.

### 빠르게 변하는 기술, 혼란스러운 인간

이번 전시에서 료지 이케다는 신작 4점을 포함해 총 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신작 'data.flux [n° 2]'(2025)는 인체의 DNA 데이터를 사용해 기하학 패턴으로 변환시킨 작품이다. 기하학 패턴이 천장에 설치된 10m 길이의 LED 스크린에 끝없이 흐르며,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몰입감을 선사한다. 빠르게 흘러가는 기하학 패턴 영상 속에서 정보는 쉽 없이 변화하고, 보는 이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그 흐름에 도달하기 어려운 인지적 한계를 마주할 것이다.

'critical mass'(2025)는 가로세로 10m의 바닥 스크린에 투사된 검은 원과 흰빛의 극명한 대비와 신체를 울리는 전자음으로 관객의 감각을 증폭시킨다. 과도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올 때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과부하 현상처럼 충격을 느끼게 된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의 압도적 힘을 체감할 수 있으며, 정보가 무한하게 생성되는 현실 속 사람들의 지적 수준은 높아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머릿속에 혼란만 더욱 가중된 것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또한 스테인리스 패널, 천, 아크릴 판, 라이트 박스 등 다양한 물질 표면에 인쇄된 바코드 패턴을 담은 'sleeping beauty ( $\pi$ )'(2025)는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호인 파이 $\pi$ 를 표현한다. 3.14로 시작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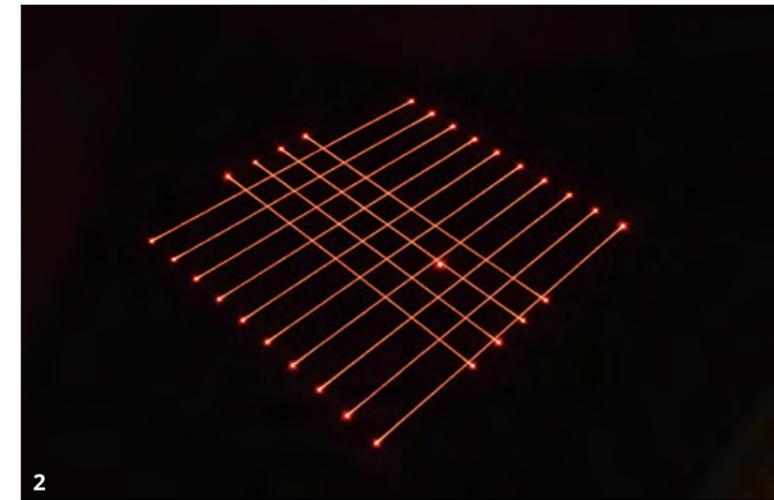
없이 계속되는 파이값은 반복되는 교칙조차 없는 무리수이며, 사람들의 이성과 계산 능력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수학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존재와 본질을 탐구하는 언어라는 걸 말하면서, 무한한 숫자와 질서 속에서 보는 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료지 이케다는 작품을 통해 묻는다.

### 몰입감 높이는 특별한 경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유럽 입자물리연구소CERN,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등에서 수집한 우주 관측 자료, 유전자 정보 같은 과학 데이터를 소재로 작업한 'Data-verse'(2019~2020) 3부작에서 파생된 'data.gram [n° 8]'(2025)은 'Data-verse'에 사용된 데이터를 18개 화면으로 나누고 다시 조합한 작품이다. 료지 이케다가 선택한 데이터를 새로운 구조로 엮어 보여주고, 관객은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전달되는지, 정보들의 조합을 바꾸면 그 의미도 달라지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Data-verse' 3부작은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부터 우주를 이루는 물리학 데이터까지 방대한 과학적 정보를 시청각적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인간 세계의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는 대표 작품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40m 길이의 벽 위로 투사된 'Data-verse' 3부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 다른 주요 작품인 'point of no return'(2018)과 'exp #1'(2020)도 다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실천의 일환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듈형 벽체 1,000개를 활용해 폐자재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설계를 고려했다. 쉬운 글 해설이 포함된 디지털 가이드와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해 전시를 감상하는 동안 느껴지는 감정과 신체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



1. 어둠과 빛의 확장·수축을 통해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는 'point of no return'(2018)  
2. 레이저 광선과 움직이는 설치물로 빛과 공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exp #1'(2020)

### 관람 안내

전시 기간 2025년 7월 10일~12월 28일  
전시 장소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3·4관  
관람 시간 화~일요일 10:00~18:00,  
수·토요일 10:00~20:00(월요일 휴관)  
관람 요금 무료



## 지역과 인간 중심 설계를 보여주다 류자쿤의 자쿤 건축

중국 건축이 대형화·서구화의 흐름을 타던 시기, 소박하고 절제된 건축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건축가가 있다.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인 류자쿤이다. 그가 이끄는 자쿤 건축은 ‘물처럼 공간에 스며드는 건축’이라는 화두를 일관되게 추구하며, 역사와 공공성을 담은 건축물을 선보여왔다.

Writer: 두경아 Photo: 하얏트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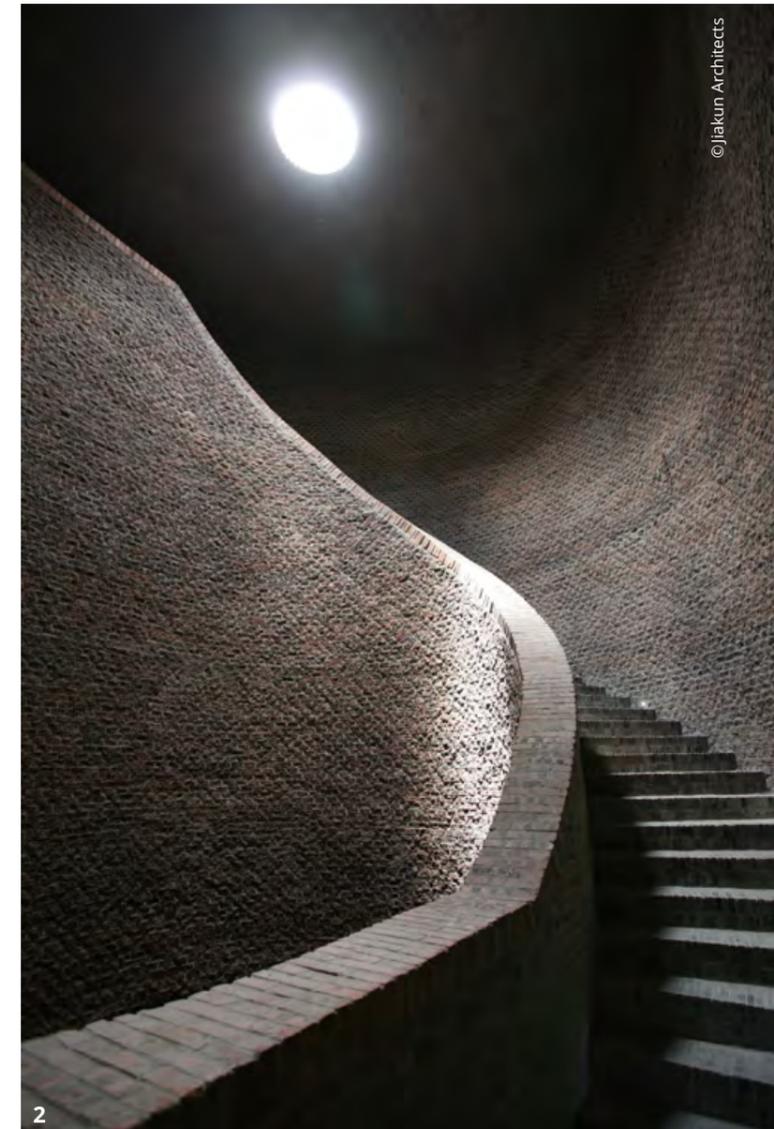
©Arch-Exist

‘세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일컫는 프리츠커상의 올해 주인공은 중국 류자쿤(劉家琨)이다. 상을 주관하는 미국 하얏트 재단은 선정 이유로 “류자쿤은 건축이 빠르게 진화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현실과 이상을 조율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건축가는 아니다. 다소 늦은 나이인 40대 이후 본격적으로 건축 활동을 시작했고, 주무대 역시 고향 청두와 인근 도시 충칭에 머물렀다. 건축가로 활동하기 이전의 행보 역시 독특하다. 그는 충칭 건축공학연구소(현 충칭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국영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근무했으나, 건축을 떠나 티베트와 신장성을 10년 동안 떠돌며 글쓰기, 그림, 명상 등에 몰두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의 건축 철학을 담은 유토피아적 서사의 소설 〈명월구상(明月構想)〉을 비롯해 건축 평론집 등 수십 권의 저서를 냈다.

1999년 그는 중국 최초의 개인 건축 사무소 중 하나인 ‘자쿤 건축’을 설립했다. 유행을 좇지 않고 ‘물처럼 공간에 스며드는 건축’을 내세워 역사와 공공성을 담은 소박하고 절제된 건물을 선보였다. 특히 2008년 쓰촨성 대지진 이후 잔해를 벽돌로 재생하는 ‘재탄생 벽돌(Rebirth Brick)’ 프로젝트 주목받았다. 이 작업은 자원 순환과 재앙 및 구원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그의 건축 세계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1. 류자쿤의 텐바오 동굴 지구 레노베이션. 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실현해냈다.
2. 쑤저우 황실 가마 벽돌 박물관. 자연광이 쏟아지는 개방형 천장을 따라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이 인상적이다.
3.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쌍양 문화지구.



©Jiakun Architects

## 건축과 자연, 일상이 조화된 도시 공간 웨스트 빌리지 West Village

'웨스트 빌리지'는 하나의 블록 안에 여가·문화·주거·상업 기능을 모두 담은 복합 건축 프로젝트로, 류자쿤 특유의 건축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그는 도시의 밀도와 개방 공간을 서로 대립하는 요소로 보지 않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 공간을 제안했다.

5층 규모의 이 건물은 한 블록 전체를 차지하며, 중·고층 건물이 주를 이루는 주변 도시 구조 속에서 시각적으로도, 맥락적으로도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건물은 경사진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 길로 둘러싸여 있어 개방감과 경계감을 동시에 주는 독특한 공간감을 만든다. 건물 안뜰에는 문화, 스포츠, 여가,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활기찬 '도시 속 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구조는 내부 활동을 감싸면서도 실내에서 틈과 열린 구조를 통해 주변의 자연과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됐다.

녹지는 지역 자생식물과 야생식물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조성했다. 특히 속이 빈 벽돌을 구멍이 위로 보이게 세워 깔아 그 사이에서 풀이 자라도록 했으며, 토착 나무 숲을 조성해 그늘과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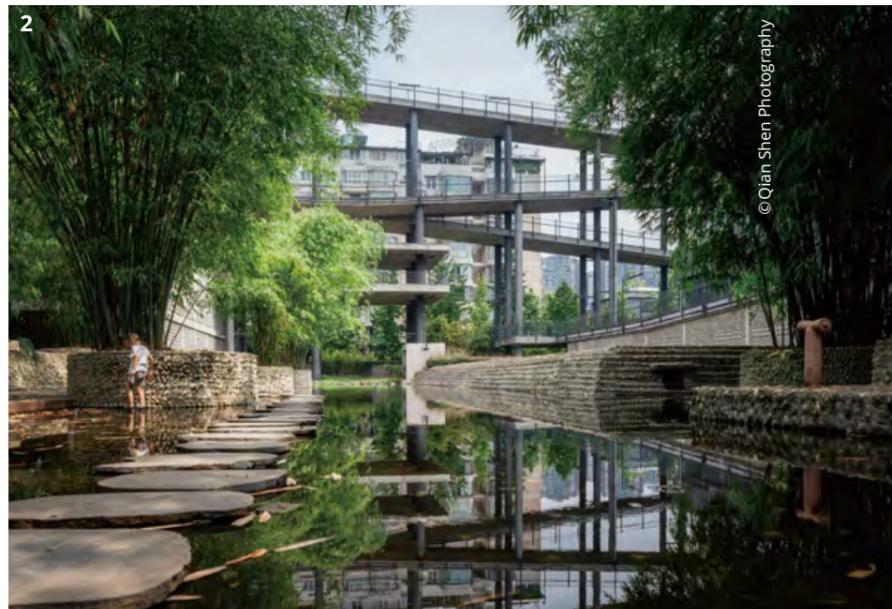
© Qian Shen Photography

3



© Chen Chen

1



© Qian Shen Photography

2

## West Village

1. 한 블록 안에 여가·문화·주거·상업 기능을 아우른 복합 건축 프로젝트, 웨스트 빌리지
2. 녹지는 지역 자생식물과 야생식물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조성했다.
3. 건물은 경사진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 길로 둘러싸여 있다.

## 600년 양조 숨결을 품은 '살아 있는 문화유산' 수이징팡 박물관 Shuijingfang Museum

쓰촨성 청두의 수이징제(Shuijing Street)에는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백주(중국 고량주) 양조장이 있다.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설립된 이 양조장은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주류 생산지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을 기반으로 조성된 '수이징팡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 그 자체다. 류자쿤은 기존 양조장과 새롭게 지은 건물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했다. 신축 건물은 기존 저장고와 안마당을 둘러싸는 배치로 설계했으며, 쓰촨 전통 가옥의 맞배지붕 형태를 채택해 주변 도시 구성과 부

드럽게 어우러진다. 지붕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은 원래 지하 저장고의 환기와 채광 방식을 재현했다. 박물관에는 옛 저장고와 발효 시설을 원형 그대로 보존·전시하고, 전통 양조 기법을 직접 시연하는 공간도 갖췄다. 전시 동선은 안마당과 전시관이 번갈아 나타나는 구조로, 건축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리듬감을 형성한다. 전시 공간에는 기존의 목재부터 2008년 쓰촨 대지진의 잔해로 만든 친환경 재탄생 벽돌까지 다양한 자재를 사용했다. 관람객은 이곳에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연대기적 여정을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 1, 2. 류자쿤은 기존 양조장과 신축 건물을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했다.
3. 지붕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은 원래 지하 저장고의 환기와 채광 방식을 재현했다.



© Arch-Exist

1



© Arch-Exist

2



© Arch-Exist

3

## Shuijingfang Museum

빛의 궤적으로 해시계를 만들다

문화혁명 시계 박물관 Museum of Clocks, Jianchuan Museum Clu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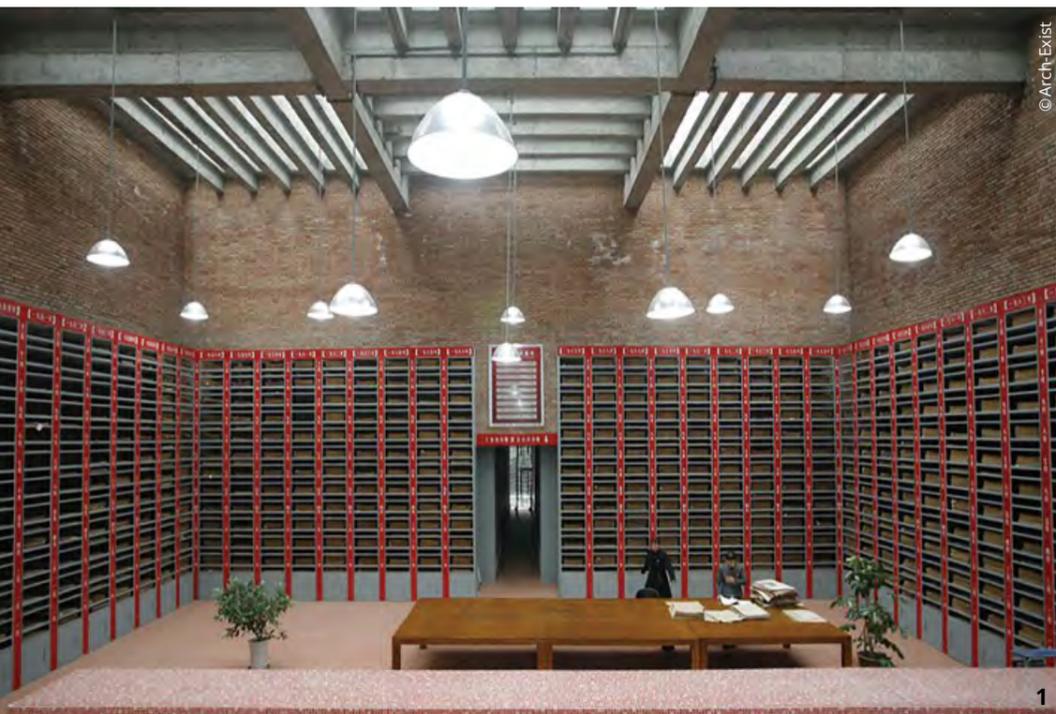
독립적인 전차관 박물관 단지 한편에 자리 잡은 '문화혁명 시계 박물관'은 고즈넉한 분위기에 있다. 주변은 북적이는 상업 시설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전통 중국 도시에서 사찰과 그 주변의 상업·주거지가 이루는 극명한 관계를 연상시킨다.

건물 외관은 붉은 벽돌과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해 문화혁명 시기의 석조 건축 질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3개 전시관은 사각형·원형·십자형 등 기하학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전시 공간 전반의 주제로 이어진다.

실내로 들어서면 곡선 벽과 직선 바닥이 대조를 이루

며 공간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벽면에 움푹 들어간 공간에는 수많은 역사적 시계가 전시되어 있는데, 광대한 규모는 몰입감을 더한다. 사각형 전시 공간에서는 관람객이 주변을 따라 순환하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전시관의 마지막은 원형 붉은 벽돌 마당이다. 천장 중앙의 원형 개구부로 햇빛이 들어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과 그림자가 움직이며 마치 해시계를 연상시킨다. 동시에 울림 효과를 만들어 관람객에게 소리, 빛, 그림자, 그리고 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 1\_ 전시관은 사각형, 원형, 십자형 등 기하학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2\_ 벽면에 움푹 들어간 공간에는 수많은 시계가 전시되어 있다.
- 3\_ 빛과 그림자가 움직이며 해시계를 만들어내는 전시장

Museum of Clocks, Jianchuan Museum Cluster

자연과 빛이 스며든 공간

루예위안 석조 미술관 Luyeyuan Stone Sculpture Art Museum

대나무 숲이 펼쳐진 강가에 자리한 루예위안 석조 미술관은 고대 불교 석조 조형물과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다. 류자쿤은 전시 동선을 따라 정원을 배치해 자연과 전시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관람객은 먼저 연못과 전통 중국식 정원을 만나고, 연못 위 보행로를 통해 미술관으로 들어선다. 대나무 울타리가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분해주며, 경사로와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빛과 자연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건물은 창이 없는 여러 매스가 모인 형태로, 매스 사이 틈새를 통해 자연광이 실내 깊숙이 스며든다. 외벽과 내부 벽은 나무 거푸집 무늬가 드러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해 전시물의 배경이자 하나의 전시 요소가 되도록 했다. 벽돌 벽은 전선을 숨기기 위해 조각 처리했으며, 바닥과 지붕에는 속이 빈 관을 겹겹이 두어 단열 성능을 높이고 구조의 무게를 줄였다. 이러한 재료와 구조설계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충족한다.

미술관 내부는 개방감 있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여러 전시실이 이어지며, 자연·빛·공간이 어우러진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

- 1\_ 여러 매스가 모인 형태의 석조 미술관
- 2,3\_ 전시 동선을 따라 정원을 배치해 자연과 전시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 4\_ 매스 사이 틈새를 통해 자연광이 전시 공간으로 깊숙이 스며든다.

Luyeyuan Stone Sculpture Art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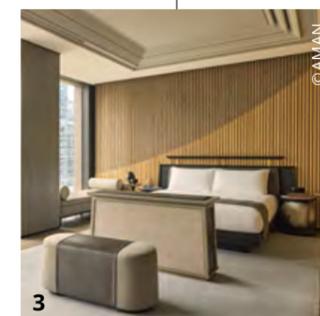
# New Luxury Stays in Asia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주목하시길.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 태국 방콕·푸껫과 일본 오사카·미야코지마, 대만 타이베이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신상 호텔이 들어섰다.

Editor. 이승률



## AMAN NAI LERT BANGKOK *Thailand*



지난 4월, 글로벌 리조트 그룹 아만이 태국 방콕에 '아만 나이러트 방콕'을 개관했다.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에 이은 세 번째 도심형 호텔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름 아닌 위치. 1915년부터 나이러트 가문이 소유해온 공원 '나이러트 파크 헤리티지 홈<sup>Nai Lert Park Heritage Home</sup>' 안에 자리해 도심 한복판 인데도 숲속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분위기는 호텔 내부로 이어진다. 이를테면 중정은 수령 100년 된 솜퐁나무<sup>Sompong Tree</sup>를 중심으로 인피니티 풀이 자리한다. 호텔 중앙 아트리움에는 12m 높이의 조각을 설치했는데, 솜퐁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금빛 잎사귀 6,000개로 장식했다. 객실은 총 52개. 가장 작은 스위트룸도 94㎡부터 시작한다. 방콕 시내 호텔 중 가장 넉넉한 면적이다. 713㎡ 규모의 아만 스위트에는 3개 침실

과 거실, 전용 스파, 주방, 다이닝 룸, 서재까지 갖췄다. 아만이 자랑하는 스파 & 웰니스 공간도 눈길을 끌기는 마찬가지. 방콕 최초로 문을 연 '반야 스파 하우스'를 비롯해 메디컬 웰니스에서는 크라이오테라피<sup>Cryotherapy</sup>와 맞춤형 정맥주사<sup>IV Therapy</sup> 등을 제공한다. 나이러트 공원 내 헤리티지 홈에서 즐기는 전통 타이 다이닝과 전용 푹푹을 타고 황혼 사원을 투어하는 몰입형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 1 Soi Somkid Lumpini, Pathumwan, Bangkok
- 2 [www.aman.com/hotels/aman-nai-lert-bangkok](http://www.aman.com/hotels/aman-nai-lert-bangkok)

- 1 방콕 도심에 자리한 아만 나이러트 방콕
- 2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 속 느낌을 주는 야외 수영장
- 3 통창을 통해 객실에서도 나이러트 공원과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다.



## TWINPALMS TENTED CAMP PHUKET

Thailand



생기 넘치는 도시 여행도 좋지만, 온전한 쉼을 누리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한다. 푸켓 북서쪽에는 넓은 모래사장구 유명 호텔이 모여 있는 방따오 비치 자리한다. 푸켓 국제공항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번잡한 관광지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얼마 전 이곳에 푸켓 최초의 텐트형 리조트 '트윈팜스 텐티드 캠프 푸켓'이 개장했다. 텐트에서 오롯이 자연과 함께하는 글램핑은 생각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듯한 기분이다. 텐트에 누워 순백의 해변과 열대우림이 만들어낸 초현실적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서라운드로 들려오는 시원한 파도 소리를 감상하는 것도 낭만적이다. 밤에는 모닥불을 앞에 두고 별과 달이 손에 잡힐 듯한 야경을 즐길 수 있다. 트윈팜스 텐티드 캠프 푸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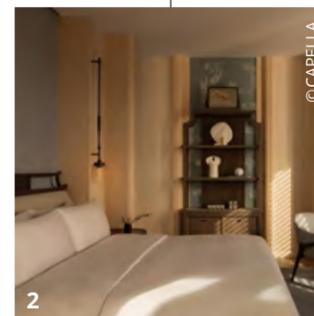
은 총 23개 객실로 구성되었다. 그중 프라이빗 풀이 딸린 2베드룸 텐트 스위트는 외부 시야가 완전히 차단돼 온전히 나만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호텔에서 운영하는 명상과 요가, 연꽃잎 접기 등 자연과의 교감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면 고급 요트를 타고 해변에 나가거나 코끼리 보호소를 방문할 수도 있다.

📍 Bangtao Beach 202 88, Cherrngtalay, Thalang Phuket 83100, Thailand  
 🌐 [www.twinpalmsresorts.com/tented-camp-phuket](http://www.twinpalmsresorts.com/tented-camp-phuket)

- 1 프라이빗 풀이 있는 2베드룸 텐트 스위트
- 2 외관은 텐트형이지만 내부는 책상과 소파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 CAPELLA TAIPEI

Taiwan



글로벌 럭셔리 호텔 그룹 카펠라가 대만 타이베이 중심에 들어섰다. 총 86개 객실을 갖춘 '카펠라 타이베이'가 그 주인공. 이 중 8개는 스위트룸, 6개는 프라이빗 수영장과 테라스를 갖춘 익스클루시브 룸으로 구성했다. 특히 228㎡ 규모의 카펠라 스위트에서는 대만의 대표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을 비롯해 타이베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펼쳐진다. 호텔 디자인을 담당한 세계적 건축가 안드레 푸 André Fu는 타이베이의 정체성을 호텔 공간에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테면 카펠라 타이베이의 시그너처 공간인 플럼 Plum 라운지는 타이베이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고, 로비에는 대만의 대표 예술가 리천린의 대형 태피스트리 작품을 걸었다. 카펠라의 핵심 가치는 문화적 연결이다. 모든 카펠라 호텔에는 컬처리스트가 상주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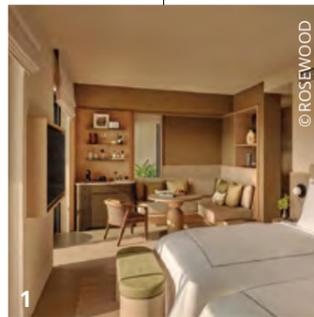
으로 유명하다. 컬처리스트는 일종의 현지 문화 콘텐츠 전문가다. 카펠라 타이베이에서도 대만의 다도 문화를 배우고, 현지 수공예 공방을 방문해 전통 공예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5개에 이르는 다이닝 공간도 특별하기는 마찬가지. '멤버 28'에서는 28일간 숙성한 프리미엄 고기를, '아틀리에 플럼'에서는 대만의 식재료를 활용한 디저트를 선보이며 '몽주'에서는 정통 광둥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 No.139 Dunhua North Road, Songshan District, Taipei  
 🌐 [capellahotels.com/en/capella-taipei](http://capellahotels.com/en/capella-taipei)

- 1 현대적 디자인과 대만의 전통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플럼 라운지
- 2 대만 고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객실 내부를 오브제로 장식했다.

## ROSEWOOD MIYAKOJIMA

Japan



1. 객실 침대에서도 막힘없는 오션 뷰를 즐기도록 설계했다.
2. 일본 최초의 프라이빗 풀빌라인 로즈우드 미야코지마
3. 해변과 맞닿아 있는 인피니티 풀



지난해 직항이 생기면서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한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에 일본 최초의 로즈우드 호텔 '로즈우드 미야코지마'가 문을 열었다. 해안선을 따라 들어선 호텔은 투명하얀 바다와 하얀 백사장, 그리고 사탕수수밭을 동시에 품고 있어 환상적 풍광을 자랑한다. 독채 형식의 55개 객실은 바다를 마주한 빌라와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하우스 객실로 구성되었는데, 이국적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도 그럴 것이 호텔 설계 및 인테리어를 담당한 네덜란드 건축 스튜디오 핏 본<sup>Piet Boon</sup>은 오키나와의 특성을 호텔 전반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오키나와 전통 건축양식을 모티브로 류큐 석회암과 류큐 기와 등 현지 건축자재를 적극 활용한 것. 모든

객실은 안과 밖의 경계를 느슨하게 해 언제든 내부와 자연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전용 테라스에는 프라이빗 풀과 커쿠지를 갖췄다. 장수 마을로 유명한 오키나와에서 즐기는 건강한 미식 경험도 빼놓을 수 없다. 호텔 안에는 4개 레스토랑이 자리하는데, 현지 생산자와 협력해 다채로운 지역 제철 요리를 선보인다. 오키나와 전통 낚시 체험과 산호초 스노클링, 바다거북 관찰, 장인과 함께하는 도예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도 좋다.

1068-1 Aza-Nikadori, Hirara, Miyakojima, Okinawa  
www.rosewoodhotels.com/en/miyakoji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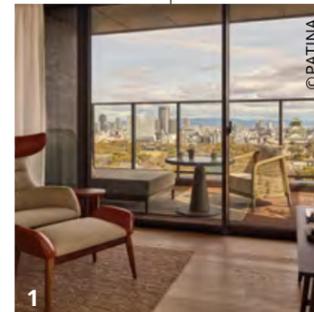
5월에 오픈한 '파티나 오사카'는 오사카성 맞은편의 나니와 노미야아토 공원 옆에 자리 잡았다. 20층에 위치한 로비와 221개 객실에서는 오사카성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현지 장인이 제작한 공예품과 오사카 출신 작가의 작품으로 공간을 채웠다. 객실은 일본어로 계절의 감각을 의미하는 '기세쓰칸'을 반영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이를테면 목재를 사용한 인테리어와 커다란 창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실내에서도 느낄 수 있게 했다. 파티나 오사카의 백미는 웰니스 시설이다. 1,400㎡ 규모의 스파는 웰니스와 첨단 기술을 한 공간에 담았다. 고압산소요법, 냉동 요법, 적색광 요법 등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아트와 음악, 디자인

등을 결합한 몰입형 경험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파티나의 브랜드 철학은 '퍼페추얼 저니'다. 즉 장소, 타인, 자기 자신을 연결한 흐름 안에서 여행자가 새로운 감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호텔을 설계한다. 파티나 오사카에서는 뉴욕 브루클린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운드 아티스트 데빈 텀블<sup>Devon Turnbull</sup>과 협업한 더 리스닝 룸을 선보인다. 맞춤형 스피커를 갖춘 공간에서 엄선한 바이닐 컬렉션과 문화 서적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일출·명상·음악 세션과 저녁 사운드 스케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음악 경험을 제공한다. ●

3-91, Banba-cho, Chuo-ku, Osaka  
patinahotels.com/osaka

## PATINA OSAKA

Japan



1. 여유로운 룸 사이즈와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객실
2.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오사카성 뷰는 가히 압도적이다.
3. 음악을 테마로 한 소나타바 & 라운지. 6,000장의 바이닐 컬렉션과 함께 카테일 등을 즐길 수 있다.





1



2

## 전 세계는 지금 <케데헌>으로 K-신드롬 열풍 글로벌 트렌드 된 한국 문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 흥행을 이어나가며 K-신드롬의 중심에 섰다. 미국 제작사와 한국계 제작진이 만든 이 작품은 K-팝과 한국 문화를 결합해 글로벌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드라마·뮤지컬·관광·식품 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신드롬을 소개한다.

Writer: 두경아 Photo: 넷플릭스, 트레이더즈, 국립중앙박물관

OTT 서비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인기가 뜨겁다. 40개국을 넘는 넷플릭스 영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누적 시청 수는 1억8,000만 뷰를 돌파하며 넷플릭스 영어 영화 부문 역대 2위에 올랐다(8월 15일 기준). 영화의 인기는 OST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인공 걸 그룹 헌트릭스 Huntrix가 부른 '골든 Golden'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Top 100 1위에 이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Hot 100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골든' 뿐 아니라 OST 전곡 모두 사랑받고 있다. '소다 팝 Soda Pop' 6위, '유어 아이돌 Your Idol' 7위, '테이크다운 Takedown' 35위 등 총 네 곡이 같은 주 오피셜 싱글 차트 Top 100에 진입했다. 이는 2012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며, 최근 들어 BTS와 멤버 지민·정국만이 세운 성과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빌보드는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1위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케데헌>은 흥행뿐 아니라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영화 리뷰 집계 사이트 로튼토마토 Rotten Tomatoes에서는 평론가 95%, 관객 94%의 긍정 평가를 기록했다(6월 29일 기준). <뉴욕 타임스>는 "이 영화가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하며 독창적 세계관을 선사했다"며, "극 중 수록곡들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슈퍼스타 아이돌이 악귀를 사냥한다'는 다소 엉뚱한 소재임에도 고른 호평이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상처와 결핍을 마주하고 극복할 때 비로소 '진짜 나'로 성장할 수 있다는 보편적 메시지와 함께 도깨비·저승사자·무당·굿과 같은 한국적 소재에서 나오는 신선한 매력 덕분일 것이다.

### 미국 제작사와 자본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걸작

놀랍게도 이 영화는 한국 제작사가 만든 작품이 아니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Sony Pictures Animation에서 제작했다. '한국산'이 아닌 '한국식 대중 문화'가 주목받은 이례적 케이스다.

다만 감독부터 주요 제작진은 대부분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이다. 5세 때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정착한 매기 강 Maggie Kang이 감독을 맡았고, '골든'은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 Audrey Nuna(추혜원), 레이 아미 Rei Ami(이예은, 김은재)가 함께 불렀다. 3명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여기에 한국 연예 기획사 더블랙레이블 The Black Label과 프로듀서 테디 Teddy가 음악 작업에 참여했고, 걸 그룹 트와이스가 '테이크다운'을 불렀다.

매기 강 감독은 "언젠가 한국 문화를 담아낸 애니메이션을



3

1 <케데헌> 주인공들은 조선시대 전통 도검인 사인검을 휘두르며 악귀를 물리친다.  
2 호떡, 오명, 김치, 컵라면 등 한국 음식으로 가득한 <케데헌> 속 한 장면  
3 저승사자를 떠올리는 복장으로 등장하는 사자보이즈

꼭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미국에서는 워든 K가 앞에 붙으면 열광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배경에서 영화는 어설플 한국 흥내가 아니라, 세밀한 고증이 눈길을 끈다. 특히 ‘혼문<sup>Honmoon</sup>’이라는 개념은 한국 고유의 민속적 세계관을 차용한 것으로, 영화의 전체 서사에 깊은 상징성을 부여한다.

매기 강 감독은 이번 작품에 대해 “단순히 K-팝을 오마주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 설화와 샤머니즘, 그리고 강인한 여성 서사를 결합해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K-팝을 단순한 배경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깃든 정체성과 문화적 의미를 깊이 있게 담아냈다. 한국적 상상력을 세계 관객과 연결하려는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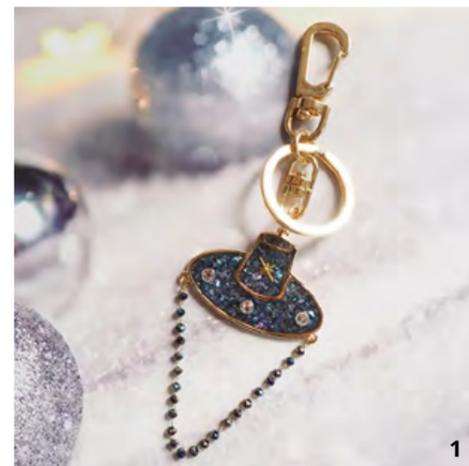
〈케데헌〉속 헌트릭스는 무대의상에 전통 장신구 노리개를 착용하고, 조선 시대 전통 도검인 사인검<sup>四寅劍</sup>을 휘두른다. 무대 배경은 해와 달, 다섯 봉우리가 그려진 일월오봉도다. 악역 사자보이즈의 복장은 저승사자의 의복을 연상

시키며, 머리에 쓴 전통 갓에는 화려한 구슬 갓끈이 장식돼 멋스러움을 더한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는 주인공들이 김밥과 새우깡, 설렁탕과 컵라면을 먹는다. 곳곳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는 전통 민화인 작호도<sup>鵝虎圖</sup>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이 밖에도 식당에서 수저 밑에 냅킨을 까는 습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한의원을 찾는 모습, 친해진 뒤 목욕탕을 함께 찾는 모습 등 지극히 한국적인 일상 문화가 영화 전반에 배치됐다.

〈케데헌〉의 무대 배경 역시 한국이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삼성역 전광판, 북촌 한옥마을, 낙산공원과 남산타워, 청담대교와 자양역, 명동 등 주요 서울 풍경이 실재 없이 등장한다. 청담대교 야경은 지하철 전투 장면에서,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은 헌트릭스의 무대 장소로, 신곡 무대가 코엑스의 외벽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는가 하면, 북촌은 루미와 진우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그려졌다.

영화의 인기로 힘입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갓부터 노리개, 도포, 호랑이, 까치가 함께 그려진 전통 민화 ‘작호도’까지 관심을 받아 굿즈로 출시해 인기를 얻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숍 ‘뭇즈<sup>MU:DS</sup>’에서는 까치와 호랑이를 형상화한 배지, 흑립 갓끈 볼펜 등 관련 상품이 입고 즉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



1, 2.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출시한 굿즈 흑립 갓끈 볼펜과 키링  
3. 영화에 등장해 사랑받은 까치 호랑이 배지

## 드라마, 영화, 연극... K-콘텐츠 열풍은 이제 시작

〈케데헌〉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속편 제작과 실사영화 및 뮤지컬화를 논의 중이며, 완구 등 상표권을 단독 출원해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했다. 게다가 K-팝의 인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K-팝 아이돌 그룹과 글로벌 아티스트가 만난 애플 TV 플러스<sup>Apple TV+</sup> 음악 경연 시리즈 〈케이팝드<sup>KPOPPED</sup>〉가 8월 29일 공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K-팝 스타와 해외 팝스타가 팀을 이뤄 서로의 히트곡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피소드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연습과 리허설을 거쳐 장르의 경계를 허문 파격적 무대를 선보인다.

K-콘텐츠의 위상은 음악에 국한되지 않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시즌 3까지 이어지며 전 세계 93개국 넷플릭스 시리즈 1위를 달성한 첫 작품으로,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하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증명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주요 소재로 한 작품도 늘고 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2023년 제작한 시트콤 〈강남 프로젝트<sup>Gangnam Project</sup>〉는 K-팝을 중심 소재로 삼아 현재 시즌 2까지 방영 중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엑스오, 키티<sup>XO, Kitty</sup>〉는 한국 고등학교에 입학한 주인공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 관광·음식으로 번지는 전방위적 K-신드롬

해외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관광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K-신드롬’이다.

실제로 신라면과 새우깡을 연상시키는 간식이 〈케데헌〉속에 등장하면서 농심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농심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러시아 유학생 20여 명을 초청해 매듭장인의 시연을 보여주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주먹밥’이라는 발음을 그대로 표기해 출시한 트레이더조 신제품  
5. 네슬레가 선보인 한국 매운 라면

미국 대형 마트 트레이더조<sup>Trader Joe's</sup>는 김밥 품절 사태 이후 주먹밥, 비빔국수, 잡채비빔밥까지 자체 브랜드<sup>PB</sup> 상품을 선보였다. 글로벌 식품 기업 네슬레<sup>Nestlé</sup>는 ‘Maggi’ 브랜드로 한국 매운 라면을 출시했으며, 미국 중식 프랜차이즈 판다 익스프레스<sup>Panda Express</sup>는 삼양 불닭 소스를 활용한 치킨 메뉴를 내놨다.

K-콘텐츠 인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관광산업이다. 실제로 영화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 장소들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낙산공원 성곽길, 명동 거리, 북촌 한옥마을 등도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가 됐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분기 외래 관광객 조사에서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았다. ●



## 신직장 문화 요지경

묘하게 달라진 직장 문화를 파악하지 못하면 괜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요즘 직장 문화를 짚어보자.

*Writer:* 한소영 *Photo:* 게티이미지뱅크, 프리픽, 한경DB *Reference:* <Z세대 트렌드 2023>(대학내일20대연구소 지음, 위즈덤하우스), <MZ세대가 쓴 MZ세대 사용설명서>(김효정 지음, 넥서스)

### 사라진 문화, 생겨난 문화

요즘 젊은 직장인은 ‘씨’ 대신 ‘님’을 붙여 서로를 부른다. ‘님’은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데, 과거에는 대부분 직급에 붙여 썼으며 이름에 붙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직급이 없다면 이름에 ‘님’을 붙여 부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이러한 새로운 언어 풍습의 원인을 두고 인터넷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씨’보다는 인터넷상에서 서로를 호칭하던 ‘님’이 더 익

숙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둘 다 존중의 호칭인데도 ‘씨’로 부르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씨’에 마치 상대를 낮춰 부르는 의미가 덧씌워졌다. 결국 부르던 방식으로 불렀을 뿐인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도 생기게 된 것이다. 접미사 ‘씨’는 조금 억울하겠지만 말이다.

MZ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직장 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달라진 혹은 달라지는 직장 문화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이전과 같은 행동을 해도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문제는 ‘말’이야

변화하는 직장 문화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은 아무래도 ‘말’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글이 논란이 된 것도 말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에게 ‘수고하세요’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불쾌감을 느낀다고 적었는데, ‘수고하세요’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이 인사를 들으면 손님보다 아랫사람 취급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이유로 설명했다. 국립국어원은 ‘수고하다’나 ‘고생하다’ 같은 표현은 윗사람의 노고를 평가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윗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사회생활에서는 윗사람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를 예의를 갖춰 써온 게 사실이다. 왜 기존의 언어에 불쾌해지는 일이 생기는 걸까?

젊은 직장인들의 영향으로 직장 문화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변해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엉뚱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효과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직된 위계를 깨뜨리는 일은 좋으나, 말의 의미를 곡해하는 것은 무용하다. 결국 변화는 직장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높은 낮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사전적 의미와 현실의 의미 모두를 잘 검토해보고 적합한 말을 하는 수밖에 없다.



### 어설픈 친화력은 화를 부른다

팀장급은 젊은 직원들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세대의 차이를 이해한답시고 MZ세대에 다가가려는 모습이 더 꼴불견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MZ세대는 기성세대와 거리감을 느낀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이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 쓰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라떼는 말이야’는 MZ세대가 기성세대를 비꼬기 위해 만든 말인데, 팀장급이 ‘라떼는 말이야’를 인용하며 농담처럼 말을 꺼내면 그 농담에 웃는 한 사람은 아마도 팀장 본인일 것이다. ‘나 때는 말이야’ 식의 얘기를 하지 말길 바라며, 기성세대를 희화화해 만든 말을 기성세대가 고루한 얘기를 꺼내는 상황에 또다시 인용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희화화한다고 괜찮다는 논리인 거냐?’라며 기성세대를 더 불쌍사납게 볼 수도 있다. 즉, 기성세대가 MZ세대를 이해한다는 듯 그들의 언어를 농담처럼 말한다면 싸늘한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크다. 젊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를 지키는 매너이지, 세대의 선을 넘어 무조건 어울리자는 것이 아닐 터다.

### 혼밥 존중 시대

점심시간 풍경이나 회식 문화도 변했다. 9시부터 6시까지

라는 전통적 출퇴근제가 아닌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자율 출퇴근제 등 근무시간에 유연성을 둔 기업이 많아지면서 각자의 업무 루틴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동료와 근처 맛집을 찾아 식사하는 즐거움보다 점심값을 절약하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은 점심시간이면 말없이 혼자 사라지기도 한다. 퇴근 후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은 정각에 퇴근하려고 점심시간까지 활용해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다. 이제는 점심시간에는 서로의 스타일에 대한 배려가 필수다. '저 사람은 혼자 점심을 먹으니 같이 먹자고 하면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갈 가능성이 크다. 점심을 같이 먹고 싶다면 최소 하루이틀 전에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어느 조사에 따르면 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 정도다.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회식은 야근에 가깝다. 회식을 통해 얻는 동료 간 친밀감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도 많다. 회사 동료와 사생활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0대는 10명 중 3명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래서 요즘 볼 수 있는 풍경은 바로 점심 회식이다.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뺏기지 않으려는 직장인에게 점심 회식은 회식에 관한 마지노선이다. 점심에 한다면 회식이 길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저녁 회식보다 환영한다.



## 일이란 무엇인가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삶에서 의미 있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 일을 꼽은 한국인은 6%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적은 수다. 잘 놀기로 유명한 이탈리아인조차 43%가 일을 꼽았다. 젊은 사원들에게 직업은 대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수단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으니 당연히 동기부여 방법도 달라지고 있다. 사명감을 강조하거나 일에 대한 열정을 북돋우려는 동기부여 방식은 '꼰대적'이라며 반발을 살 수도 있다. 그보다 객관적 성과와 실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편이 낫다. 퇴근 후 개인 시간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사원들 역시 일이 필요하므로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 불편한 답례 문화?

최근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떠나기 전에 '답례품'을 돌리는 문화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는 데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려 답례품을 돌리는 것인데, SNS에 '#육아휴직답례품'



을 검색하면 관련된 수많은 인증 샷도 볼 수 있다. 간식이나 작은 소모품 하나 하나는 비싼 물건이 아니지만, 여러 동료에게 돌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됐다고 해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 이를 불편하게 보는 사람도 생긴다.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인데 왜 '미안한 행위'인 듯 답례품을 돌려야 하느냐는 비판이다. 동료들의 배려나 희생에 어쩔 수 없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데는 모두 동의할지 몰라도, 개인이 사비를 들여 답례품을 돌리는 것은 찬반이 갈리는 문제다. 답례품이라고 무조건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다. 고로 답례품을 준비할 때는 선물을 주고도 육먹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동료들과 신중하게 논의해보는 것이 좋겠다.

## 어린 팀장의 등장과 권한 이동

기성 언론 매체 외에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이 생기면서 소비자가 그 회사의 사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말단 직원을 아는 경우가 왕왕 생겼다. 사람들은 충주시 시장이 누군지는 몰라도 충주시청 주무관 '충주맨'은 안다. 그는 충주시 홍보 유튜브를 통해 시장보다 유명한 직원이 됐다. 이제는 1990년대생 팀장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022년 우리은행에서는 창립 123년 만에 처음으로 사원급 팀장이 탄생했다. 최근 여러 기업에서는 1990년대생 팀장이나 임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저연차 직원에게 온전히 프로젝트를 맡겨 크게 성공한 경

우도 자주 나타난다. CU의 1996년생 김소연 MD는 상품의 절반 이상을 크림으로 채운 '연세우유 크림빵'을 만들어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성과를 냈다. 그의 경력은 불과 8개월이었다. 이 같은 성공 신화는 1990년대생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권한을 주었기에 탄생했다는 평가가 많다. 톱다운(하향식)이 익숙한 세대에게 보텀업(상향식)의 기업 문화는 낯설지 모르지만,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전략이 됐다.

상향식 의사 결정과 수평적 소통을 추구하는 다양한 제도가 기업 전반에 도입되고 있다.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 최종 결정 단계에서 저연차 직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획·개발 단계부터 마케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저연차 직원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제도를 넘어 조직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재를 영입하고 이들과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는 데 직장 내 문화를 읽는 힘이 중요해 보인다. ●

1. 충주시청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은 단연 '충주맨'이다.
2. MZ세대 MD가 개발한 CU의 '연세우유 크림빵'은 공전의 히트를 쳤다.





# 선율로 잇는 세계,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클래식계의 아이돌,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찬사지만 그것은 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깊은 연주자이자 치열한 해석자로서의 대니 구다. 그가 끝내 바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음악을 모두와 나누고 싶은 것이다.

Writer: 강은진 Photo: 크레디아뮤직엔아티스트

## 성취의 무대, 새로운 여정

유난히 뜨겁던 올여름, 달력은 어느새 가을을 가리키지만 여전히 공기 사이사이에서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계절과 가장 닮아 있는 음악가를 꼽는다면 단연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다. 지난 7월, 그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생애 첫 단독 리사이틀 무대를 열었다. 공연 제목은 여름의 계절감 그대로 'SUMMER'였다. 예술의전당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국내 클래식 음악계에서 예술적 성취와 위상을 상징하는 특별한 무대다. 아무리 이름난 연주자라 해도 쉽게 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2016년 앙상블 디토 공연으로 한국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대니 구가 7년 만에 이곳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진지한 여정을 짐작하게 한다.

“예술의전당 무대의 무게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무게가 공연을 마치고 나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는 여러 번 서봤지만, 리사이틀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어요. 정말 감사한 기회이고 즐겁게 준비했는데, 막상 무대에 오르니 왠지 무섭더라고요. 다른 콘서트홀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었죠.”

그는 그날의 긴장과 벅찬 감정을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무대를 마친 순간, 대니 구는 ‘큰 걸 해냈다’는 성

취감이 밀려왔다고 한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OK! 내게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구나. 이걸 통해 또 성장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 대중과 예술 사이

비타민 D, 대니 보이, 클래식계 아이돌, 해피 바이러스, 루턴맨, 핑크퐁 삼촌. 대니 구에게 붙은 별칭은 실로 다양하다. 아마도 국내 클래식 아티스트 가운데 가장 별명 연주자일 것이다. 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무대 안팎에서 보여준 그의 특별한 행보가 남긴 흔적이다. MBC <TV 예술무대> 진행자로 활약한 그는 KBS <불후의 명곡>, MBC <라디오스타> 등 다양한 방송에서 남다른 입담과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 어린이 음악회 <핑크퐁 클래식 나라>에서는 연주뿐 아니라 뮤지컬 배우들과 춤을 추며 무대를 채웠다. 정점을 찍은 건 관찰 예능 MBC <나 혼자 산다>였다. 클래식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일상을 공개하며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클래식 연주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제 클래식은 몰라도 대니 구는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국내의 클래식계 분위기를 고려하면, 그 역시 적잖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나 혼자 산다> 제안을 받았을 때 가장 고민이 많았어요. 다른 활동과 달리 모두가 말렸거든요.(웃음) 저도 재밌을



것 같았지만, 말 그대로 발가벗는 기분이 들 것 같아 두렵기도 했죠. 그때 유일하게 응원해주신 분이 조수미 선생님이었어요.” 결정을 앞두고 그는 소프라노 조수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때 조수미는 대니 구에게 “스스로를 아티스트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연예인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망설임 없이 아티스트라고 답하자, 조수미는 “우리는 엔터테이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것이고,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조언했다. 그 한마디가 대니 구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단순히 무대 위 연주자가 아니라, 클래식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즐거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일깨워준 것이다. 무엇보다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대중에게 존경받는 조수미가 자신의 활동을 같은 결로 바라봐주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확신과 힘이 되었다.

### 음악으로 잇는 길

“〈핑크퐁 클래식 나라〉를 7년 동안 했는데 작년 인천 송도 국제학교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을 때, 한 중학생이 ‘선생님을 보고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벅찬 순간이었어요. 클래식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제 마음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진짜 거장들은 장르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저 역시 클래식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장르를 가리지 않고 존경하는 이들과 음악을 나누고 싶어요. 서로 다른 음악이 만나 영향을 주고받을 때, 모든 장르가 서로를 돕고, 함께하면... 음악은 더 풍부해지고 확장됩니다. 제 음악 역시 깊어지고요.”

대니 구는 클래식과 대중을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무대에서는 연주뿐 아니라 춤과 노래도, 그것이 클래식을 전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그의 소망은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 단독 무대를 위해 선택한 곡들은 비발디와 피아졸라를 비롯해 니노 로타, 알렉세이 이구데스만, 레너드 번스타인 등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작곡가들의 작품이었다. 특히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과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여름’을 나란히 배치한 구성은 고전과 현대, 바로크와 탱고의 세계를 한 무대에 불러내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가 방송과 연주를 오가며 보여주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처럼 프로그램 자체가 곧 그의 음악적 지향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의 연습은 언제나 바흐로 시작된다. 스케일이 손을 푸는 과정이라면, 바흐는 마음을 여는 과정이다. 매일 20분 동안 바흐를 연주하며 호흡을 고르는 것이 그의 루틴으로 자



리 잡았다. 인생곡은 여전히 샤콘이다. 작은 악기인 바이올린으로 16분간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이 작품은 고독하지만 가장 큰 세계를 품고 있다. 그는 그 곡 속에서 연주자로서의 길과 삶을 겹쳐보며 오늘도 바이올린 앞에 선다.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서 첫 리사이틀을 치른 대니 구. 그가 전하는 음악은 이제 계절을 넘어 더 많은 이의 마음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

### 대니 구 음악을 만나는 대표 앨범 Best 3



**HOME(2022)**  
따뜻함과 정을 담아낸 대니 구의 음악적 고백. 〈Danny Boy〉부터 자작곡 〈Will You Be My Home〉까지, 클래식-재즈-러브송을 넘나드는 6트랙이 담겨 있다. 바흐 샤콘느와 재즈 스탠더드까지 아우르며, 한 장의 음반으로 그의 폭넓은 음악 여정을 경험할 수 있다. 곡마다 서로 다른 감정의 결을 지니며, 사랑과 그리움, 설렘과 고백이 공존한다. 듣는 순간, 그의 음악이 왜 ‘따뜻함’과 맞닿아 있는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CONNECTED(2022)**  
‘해피 바이러스’ 대니 구가 전하는 첫 정통 클래식 앨범. 드보르자크, 크라이슬러, 포레, 거슈인부터 피아졸라까지 아우르는 풍성한 레퍼토리를 담았다. 희망과 기쁨, 그리고 공감을 선율에 실어 클래식의 본질을 새롭게 전한다. 익숙한 명곡들이 그의 해석을 거치며 새로운 숨결을 얻고, 섬세한 바이올린 톤이 곡의 매력을 배가시킨다.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문턱을 낮춰주는, 친근하고도 깊이 있는 음반이다.



**DANNY SINGS(2025)**  
첫 보컬 앨범 〈Danny Sings〉, 대니 구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작품. 자작곡 8곡을 포함한 10트랙 전곡에 직접 작곡·작사·프로듀싱으로 참여했다. 보컬리스트 빈센트 블루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클래식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도전이다. 바이올린 대신 목소리로 전하는 그의 진심은, 그 어떤 연주보다 따뜻하고 강렬하게 다가온다. 클래식과 보컬,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그의 음악 여정을 집약한 기록이다.

# 우리은행 TWO CHAIRS × 가연결혼정보

결혼? 나의 가치 있는 선택  
답은 가연



- **제휴서비스:** 「우리은행 × 가연 프레ستی지 서비스」주1) 1년 이용 바우처 제공
- **제휴기간:** 24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단, 선착순 100명 마감 시 조기 종료)
- **대상자:** 우리은행 TCE주2) 고객 중 희망고객 (단, 가연결혼정보 남녀 연령조건주3) 충족 限)
- **바우처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전담 PB/FA 통한 제휴서비스 이용 바우처 신청
- **서비스 가입 절차:** 바우처 수령 후 가연결혼정보 표준약관 및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제휴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주4) 및 외국 국적자 서비스 제공 불가, 바우처 양도 및 판매 불가

주1) 프레ستی지 서비스: 담당 매니저 2대 1 전담관리, 결혼전제 만남추천, 정회원 전용 파티 초대 등  
 주2) TCE: 우리은행 고객분류 기준으로 순수개인 금융수신 6개월 평잔 10억이상 고객 (금융수신: 수신+신탁+수익증권(해외펀드포함)+방카슈랑스+청약저축+통장식CD+퇴직연금(DC)가입자적립금)  
 주3) 연령조건: (24년도 기준) 남성 94년생(30세)~59년생(65세), 여성 99년생(25세)~63년생(61세)  
 주4) 청탁금지법 대상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교사/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원행사인 및 그 배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 만족도 91.6%** 23년 3월 1일~24년 5월 12일에 프로필 추천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매칭 서비스 만족도 평가] 결과, 총 4개 평가등급 중 상위 2개 등급[매우만족, 만족]을 선택한 비율

**가연결혼정보 전담상담센터 | 1666-5314**



# SENIOR &



삶에서 경험은 가장 큰 스승이며, 헤안의 원천입니다.  
지금껏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경험 속에서  
현재 삶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봅니다.



# The Essence of Wellness

집과 커뮤니티, 자연을 하나로 엮어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은 삶을 설계하는 가장 세련된 방식이다. *Writer.* 이승률, 조진혁 *Photo.* 무와 제이드

## 나 자신을 이해하는 고요한 시간

프라이빗 럭셔리 하우스의 가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즉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는 10월 강원도 춘천에 들어설 '무와 제이드 MUWAJADE'는 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삼아, 그동안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웰니스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다. 오직 32세대로 구성된 프라이빗 빌라는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와 슈퍼리치의 하이엔드 주거 공간 설계를 담당해온 타라 버나드 등 거장의 손으로 완성해 특별함을 더한다.

무와 제이드가 강조하는 웰니스 철학은 커뮤니티 하우스 안에 자리한 '무와 웰니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너만을 위해 설계한 커뮤니티 하우스는 사교와 휴식, 건강을 아우르는 공간이다. 유리 너머로 계절의 변화를 담아

내는 비스타 풀은 길이 21m, 수심 1.2m의 여유로운 규모에 사계절 내내 최적의 수온을 유지한다. 시간대마다 달라지는 빛과 물결, 사운드가 어우러진 수영은 하루를 완성하는 하나의 의식이 된다. 여기에 전문 트레이너가 이끄는 무브먼트와 요가, 명상, 호흡을 결합한 마인드풀니스 프로그램, 그리고 스파 프로그램이 더해져 오너의 신체와 정신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액티브한 스포츠를 즐기는 오너를 위한 골프 스튜디오와 테니스 클럽도 갖추고 있다. 무와 제이드가 제안하는 웰니스는 커뮤니티 하우스에서뿐 아니라 오너의 사적 공간인 빌라로도 이어진다. 마스터 스위트 욕실에는 히노끼 사우나와 노천탕이 있어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각 세대에 마련된 아웃도어 풀은 자연을 배경으로 수영을 즐기는 또 하나의 프라이빗한 휴식처가 된다. 저녁이면 '파이어핏'에서 불꽃과 별빛이 어우러지는 몽환적 시간을 보내거나, 피트 아우돌

프가 설계한 프라이빗 가든을 거닐며 계절의 변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리는 미식

웰니스 여정은 '무와 다이닝'에서 마무리된다. 아침에는 절제되고 정갈한 조식이 하루의 시작을 열고, 저녁에는 시그너처 룸·프라이빗 룸·테판 룸 등 각기 다른 테마의 공간에서 미식의 즐거움을 완성한다.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낸 무와 다이닝은 오로지 맛과 경험의 본질에 집중하며, 오너의 감각을 순수하게 만족시킨다. 무와 다이닝의 하이라이트는 라운지, 테이스팅 룸, 그리고 최대 1만 병을 보관할 수 있는 와인 까브다. 이곳에서 오너는 취향에 맞는 미식 경험을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셜 룸에서는 다양한 보드게임과 함께 아늑한 휴식을, 테이스팅 룸에서는 유명 와이너리와 협업한 특별한 시음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다.

## 라이프스타일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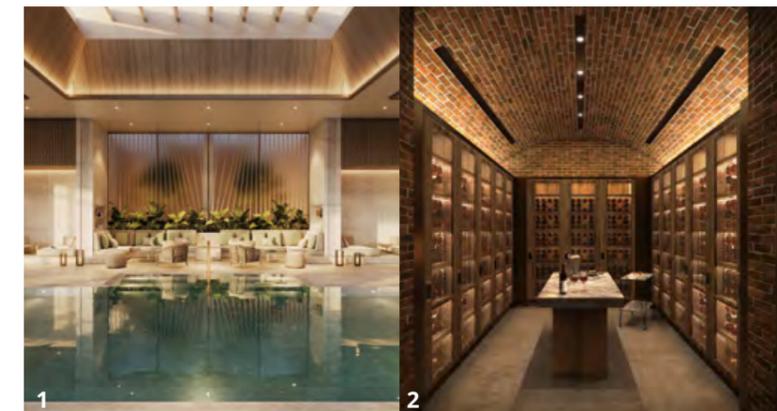
무와 제이드의 라이프스타일은 단지 경계를 넘어 확장된다. 단지 옆 국내 최고 수준의 회원제 골프 클럽 '제이드펠리스'는 원형 지형을 살린 18홀 코스와 파노라마 뷰로 특별한 플레이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제이드가든'은 확장된 정원처럼 4,000여 종의 식물과 26개 테마가든을 갖추어 매일의 산책을 작은 여행으로 바꿔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춘천과 가평의 아름다운 산과 강, 호수에 둘러싸인 무와 제이드는 지친 일상과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에 깊은 휴식을 제공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무와 제이드의 웰니스 철학은 생활을 넘어 매일 매 순간을 예술적 삶으로 확장시킨다. 무와 제이드에서의 하루는 나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삶을 설계하는 가장 세련된 방식이자, 프라이빗 럭셔리 하우스에서만 가능한 웰니스의 본질이다.

## 삶이 예술이 되는 공간

자연과 공간이 하나 되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술로 승화되는 곳. 무와 제이드가 궁금하다면 올가을 새롭게 공개한 '하우스 오브 무와 제이드'에 방문해보길 추천한다. 제이드펠리스 골프 클럽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오직 하루 세 팀만을 위한 프라이빗 투어를 진행한다. 사전 예약은 필수다. ●

☎ 02-729-5931 🌐 www.muwajade.com



1. 사계절 언제든 원하는 시간대에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비스타 풀  
2. 최대 1만 병의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와인 까브는 완벽한 향온·향습 설비를 자랑한다.  
3. 단지 내에 위치한 커뮤니티 하우스는 무와 웰니스와 무와 다이닝으로 구성되어 사교와 휴식, 건강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 레이크사이드 CC 퍼블릭 골프장의 역사를 담은 육각형 골프 클럽

레이크사이드 CC는 뛰어난 코스 관리와 건강한 잔디, 서울에서의 접근성뿐 아니라 대중성까지 두루 갖춘 육각형 골프 클럽으로 꼽힌다. 거기에 긴 전장과 도전적 코스 설계로 골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는 곳이다.

Writer: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Photo: 레이크사이드 CC



긴 전장을 자랑하는 서코스 11번 홀(파 5)과 서코스 12번 홀(파 3) 전경

**대한민국 시그너처 홀**  
대한민국에는 54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골프장에는 오너와 설계자가 가장 공들여 조성한 골프장의 '얼굴'이라 할 만한 홀이 있습니다. 적게는 18홀, 많게는 81홀 가운데 가장 멋진 딱 한 홀, 바로 '시그너처 홀'입니다. 명문 골프장의 명품 홀을 소개합니다.

주말 골퍼들이 골프장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접근성이다. 코스 품질과 뛰어난 코스 디자인 및 서비스 등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골프장은 골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기본으로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운동이기에 특히 교통량이 많은 주말에는 접근성의 가치가 무엇보다 높아진다. 여기에 완벽한 코스 관리,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코스까지 갖추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골

프장이 된다. 경기 용인에 자리 잡은 레이크사이드 CC가 대표적이다. 남해 사우스케이프 CC처럼 입이 떡 벌어지는 절경이 있거나, 경기 용인 남부 CC와 여주 해슬리나인 브릿지CC처럼 폐쇄적이고 프라이빗한 초특급 서비스는 없다. 하지만 서울 강남에서 30~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여기에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 특유의 코스 관리, 밀도 높고 건강한 잔디 등은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춘 '육각형 골프장'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여기에 회원제 18홀과 비회원을 위한 대중형 36홀로 모든 아마추어 골퍼에게 열려 있는 점은 가장 큰 매력이다. 골퍼 애호가들 사이에서 "롤렉스 시계 같은 골프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파틱 필립 같은 초고가 시계는 아니지만 선호도와 인지도는 오히려 높고, 품격과 위상도 떨어지지 않는다. 금고에 모셔두기보다는 매일 손목에 둘러도 부담이 적다. 레이크사이드 CC는 비싼 회원권이 없는 일반 골퍼도 치열한 예약 전쟁에서 승리하

면 즐길 수 있다. 동·남·서 코스 54개 홀 하나하나가 명품인 레이크사이드 CC에서 단연 얼굴로 꼽는 홀은 회원제인 서 코스에 자리 잡고 있다. 화이트 티 515m, 레드 티에서도 428m로 긴 전장을 자랑하는 11번 홀, 이 코스의 핸디캡 1번 홀이다. 구역부터 홀까지 내리막으로 쭉 뻗은 파 5 홀이지만 시야가 탁 트인 덕분에 저 멀리 그린까지 한눈에 보였다. 오른쪽에 늘어선 벙커와 워터해저드가 부담을 줬지만, 힘차게 티샷을 날렸다.

## 한국 퍼블릭 골프장의 산 역사

레이크사이드 CC는 한국 퍼블릭 골프장의 산 역사다. 1990년 제일 교포 사업가 고 윤익성 씨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경기 용인에 36홀 규모의 정규 코스를 갖춘 퍼블릭 골프장을 만들었다. 당시만 해도 국내 골프장은 회원제 구장으로, 퍼블릭 코스는 거기에 곁들인 9홀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레이크사이드 CC는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 정규 코스 퍼블릭 골프장이었다. 여기에 1997년 회원제 18홀을 더하면서 총 54홀 규모로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이 됐다. 지금은 81홀 규모의 전북 군산 CC에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 타이틀을 넘겨줬지만, 레이크사이드 CC는 여전히 한국 골프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고의 입지, 완벽한 관리로 주목받은 레이크사이드 CC는 개장 이후 '한국에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골프장'으로 꼽혀왔다. 각종 프로 대회와 아마추어 대회로 명장면과 스타도 많이 만들어냈다. 한국 여자 골프의 대표 스타 최나연이 프로로서 첫 승을 거머쥔 곳이 바로 이곳 서 코스였다. 2004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정규 투어에서 우승해 신데렐라로 떠오른 최나연은 2005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와 소나무가 운치를 더한다.

년 6월 레이크사이드오픈에서 프로 전향 뒤 첫 승을 거두며 '최나연 시대'를 열었다.

## 긴 전장, 빠른 그린, 완벽한 페어웨이

2014년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이 인수하면서 레이크사이드 CC는 삼성그룹의 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삼성물산 잔디환경연구소가 개발한 안양중지 대신 한국잔디(페어웨이, 러프)가 심어져 있다. 삼성이 인수하기 전에 심은 잔디 상태가 좋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티 구역에는 켄터키 블루그래스, 그린은 벤트 그래스가 식재돼 있다. 건강한 잔디가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밀도 높은 페어웨이는 라운드의 피로를 덜어준다.

대중형인 동·남 코스, 그리고 회원제인 서 코스는 각기 다른 매력으로 골퍼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한다. 동·남 코스는 전장이 길고 도전적인 세팅을, 서 코스는 보다 아기자기하면서도 아름다운 조경을 자랑한다. 그렇다고 해서 서 코스의 난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이날 경기를 함께 한 캐디는 "규정대로 치면 평소보다 5~10타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은 라운드 시작 뒤 몇 개 홀 만에 절절



희귀 품종인 붉은색 칠엽수를 사이에 둔 서 코스 1번 홀과 남 코스 1번 홀



서 코스 2번 홀에서는 호수를 넘어 3번 홀과 4번 홀을 볼 수 있다.

하게 실감했다. 일단 길다. 레이크사이드 CC의 서 코스 총 전장은 7,079m다. 동 코스와 남 코스도 7,000m가 넘는다. 일반 골프장보다 300~500m 길다. 코스를 벗어나면 십중팔구 OB 처리하는 레이크사이드 CC의 로컬 룰도 스코어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한몫한다. 레이크사이드 CC 관계자는 "공이 코스를 벗어나면 거의 90% 이상이 OB로 처리한다"며 "방향성이 나쁜 골퍼는 피하고 싶은 골프장"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깊은 러프, 곳곳에 파놓은 벙커, 워터해저드 등 각종 함정이 더해진다. 잔디로 뻑뻑하게 채워진 페어웨이에 똑바로 공을 올려놓지 못하거나, 그린을 놓치면 그에 대한 묵직한 벌칙이 내려진다.

##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11번 홀

잔잔한 호수, 그리고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골프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신선놀음하듯 한 샷 한 샷 치다 보니 어느새 시그너처 홀인 11번 홀에 닿았다. 티 구역에 서자 오른쪽에 길게 늘어선 벙커와 워터해저드가 압박감을 줬다. 너무 의식한 탓인지 티샷이 왼쪽 러프로 향했다. 티샷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5번 아이언을 잡았다. 하지만 패착이었다. 긴 러프에 채가 감기면서 공은 50m를 가는 데 그쳤다. 또다시 러프, 이번엔 8

번 아이언으로 레이업한 뒤 네 번째 샷으로 그린을 노렸다. 프린지에 걸친 공으로 다가가자 완전히 다른 그린이 펼쳐졌다. 멀리서는 평평해 보였지만, 상당한 경사가 퍼팅 라인을 교란시켰다. 여기에 2.8~3.2m(스팀프미터 기준)의 그린 스피드는 어설픈 퍼팅을 용서하지 않았다. 3퍼트, 더블보기로 홀을 나서야 했다. 핸디캡 1번 홀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더라도 홀을 나서기 전에는 반드시 뒤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 누엠티엠티 넘어가는 해와 잔잔한 호수, 울창한 나무숲, 뻑뻑한 초록 잔디가 어우러진 풍광,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은 스코어에 대한 실망감을 한 번에 날려줬다. 이곳이 바로 레이크사이드 CC의 최고 경관 조망점, '1경'으로 꼽히는 이유다. ●



### Information

규모 54홀 420만㎡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 181  
그린 피 코스, 요일, 시기에 따라 상이  
(20만~30만원 전후)  
문의 031-334-2111  
홈페이지 www.lakeside.kr



## 그린 공략 확률 높이는 두 가지 팁 아이언 샷에서 정확도 높이는 실전 전략

골프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상황에 따른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연습 때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이유다. 평소 연습 시 클럽별 거리 차이를 정확히 알고, 샷의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한다면 실전에서도 원하는 스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riter: 오진동 Photo: 오진동, 프리픽

라운드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100~160m 이내의 세컨드 샷이다. 이 거리는 5번 아이언 이하의 클럽으로 공략하는 경우가 많고, 파 3 홀 전체와 파 4, 파 5 홀의 세컨드 샷 혹은 짧은 파 5의 서드 샷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리다. 거리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아마추어 골퍼들의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다.

### 심리적 욕심을 자극하는 거리, 160m

160m 이내는 그린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심리적 욕심을 자극하는 거리다. 핀을 바로 노려보고 싶고 기왕이면 올려서 쉽게 파를 잡거나 버디 찬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바로 그 욕심이 불필요한 긴장과 과한 스윙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는 미스 샷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풀스윙으로 거리를 정확히 맞추려 하거나 평소보다 더 강하게 치려는 시도는 오히려 방향성과 임팩트의 정확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다.

실전에서는 잔디 상태, 경사, 바람 심지어 주변의 시선까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준다. 연습장에서는 잘 맞던 샷이 필드에서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의문이 든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 거리에서의 심리와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테크닉보다는 습관 감각 원칙에 가까운 팁이지만 실전에서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그린에 올리는 확률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160m 이내에서 아이언 샷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소개할 전략은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며, 아마추어뿐 아니라 중·상급자에게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내용이다. 이 두 가지 루틴이 몸에 익숙해진다면 실전에서 불안한 세컨드 샷이 기회가 되는 샷으로 바뀌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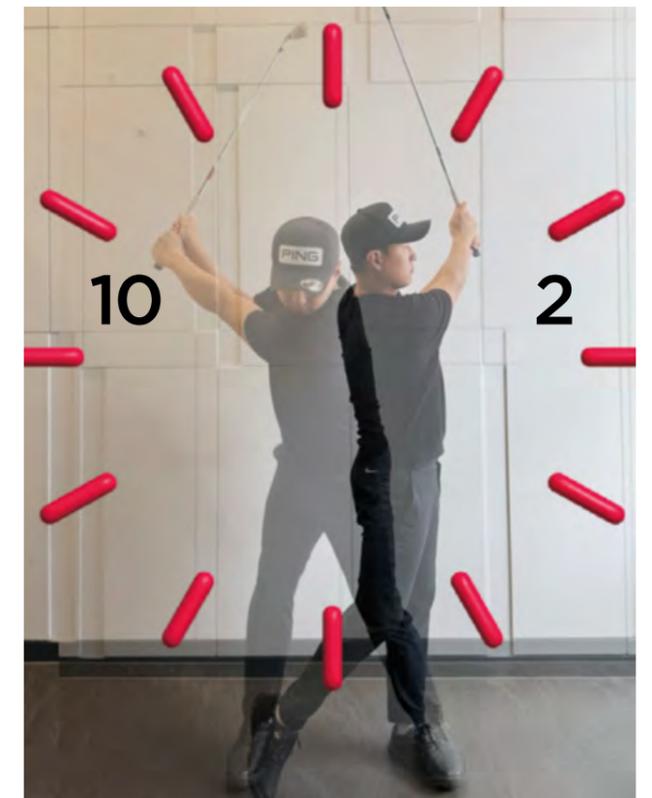
### Tip 1. 풀스윙하지 않기(feat.하프 스윙으로 컨트롤 샷)

160m 이내의 아이언 샷에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가 범하는 공통적인 실수는 바로 거리 맞추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무리하게 풀스윙을 하는 것이다. 연습장에서는 어느 정도 잘 맞았던 7번 아이언 풀스윙이 실전에서는 큰 실수가 되기도 하고, 잘 맞았을 때보다 오히려 불안한 샷이 더 자주 나오기도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풀스윙은 동작이 크고 스윙 템포가 빠르며, 오차 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임팩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고 다양한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백스윙을 끝까지 크게 올리고 몸 전체를 써서 강하게 휘두르는 풀스윙은 스윙 궤도나 임팩트 위치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컨트롤이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는 스윙이 빨

라지고 상체가 일찍 열리면서 방향성은 더 흔들리기 쉽다. 풀스윙을 할수록 의도한 샷보다 크거나 작게 나갈 확률이 높고, 이는 실수로 연결될 가능성을 키운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하나 더 잡고 스윙 크기를 줄이는 컨트롤 샷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140m 정도의 거리에서 7번 아이언으로 풀스윙을 한다면 같은 거리를 6번 아이언으로 부드럽게 하프 스윙을 해보는 것이다. 스윙 크기를 줄이면 백스윙과 피니시의 일관성이 생기고, 임팩트 타이밍을 더 정확히 맞출 수 있다. 무엇보다 하체와 상체의 균형이 끝까지 유지되며 샷의 안정감이 커진다. 결과적으로 클럽 페이스의 정렬이나 클럽 패스(Club Path)의 오차를 줄여주고, 똑같은 거리라도 더 편안한 스윙으로 핀을 공략할 수 있다.

이때 많은 골퍼가 하프 스윙을 약하게 친다고 생각하지만, 핵심은 힘을 빼고 살살 치는 것이 아니라 리듬과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스윙 크기만 줄이는 것이다. 공을 치는



속도는 똑같이 올려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어깨와 손이 만드는 아크를 의식하고 백스윙을 시계 방향 기준 10시 위치까지만 올린 뒤 피니시는 2시 방향 정도에서 멈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스윙 크기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실전에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쉬워진다.

### Training 1 클럽별 거리 차이 알아보기

연습장에서 각 클럽별로 풀스윙과 하프 스윙 거리 차이를 측정해두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메모해두는 것이다.

	풀스윙 기준	하프 스윙 기준
7번 아이언	140m	130m
8번 아이언	150m	140m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두면 실전에서 140m라는 거리가 나왔을 때 반드시 7번 아이언 풀스윙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더 편한 스윙 크기로 같은 거리를 낼 수 있다는 선택지를 갖게 된다. 특히 바람이 불거나 경사가 있어 긴장되는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클럽 선택과 스윙 크기를 조절해 안정적인 샷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실전에서 스코어를 지키는 하나의 전략이며, 프로 경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테크닉이다.

자신의 스윙 리듬을 유지하면서 클럽 선택과 스윙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은 중급자 이상의 골퍼로 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 Tip 2. 공 앞 30cm 지점을 목표로 스윙하기

아이언 샷의 방향성과 탄도는 임팩트 순간뿐 아니라 임팩트 이후 클럽 헤드가 어떤 경로로 빠져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많은 골퍼는 스윙을 ‘공을 맞히는 동작’



으로 끝내버린다. 이 습관은 임팩트 직전에 상체가 들리거나 손목이 일찍 풀리는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방향과 거리 모두 불안정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공 앞 30cm 지점을 시각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목표 지점은 단순한 심리 장치만 아니라, 스윙 궤도와 임팩트 타점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강력한 루틴이 된다.

### 목표 지점 설정과 활용법

- 어드레스 전 타깃 방향으로 공 앞 약 30cm 떨어진 곳에 있는 낙엽, 잔디 조각, 지푸라기, 디벗 자국 같은 작은 이물질들을 찾는다.
- 시선은 공에 두지만 결눈질로 그 이물질의 위치를 인식한다.
- 스윙할 때는 임팩트를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고, 헤드를 공 앞 30cm 목표 지점까지 던져주는 느낌으로 휘두른다.
- 이렇게 하면 상체가 일찍 들리는 동작이 줄고, 손목이 일찍 풀리는 것을 방지해 임팩트 시 로프트와 페이스 각도가 안정된다.



### Training 1 연습장 라인 훈련

매트 위에 흰색 반창고를 붙여 공 앞 30cm 지점을 표시하고, 스윙 시 클럽 헤드가 반드시 그 지점을 통과하도록 반복한다. 단순히 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지나가는 궤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Training 2 필드 환경 활용

라운드 중에는 주변의 낙엽, 잔디 조각, 지푸라기, 작은 디벗 자국 등 자연스러운 이물질을 활용해 목표 지점을 설정한다. 타깃 방향으로 공 앞 30cm 안쪽에 위치하도록 찾아두면 좋다.

### Training 3 헤드 방향감각 익히기

어드레스 자세에서 클럽 헤드를 공 위에 살짝 띄운 상태로 목표 이물질 쪽으로 부드럽게 왕복시키는 연습을 한다. 이때 공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헤드가 목표 방

향으로 뻗어나가는 느낌과 경로를 몸에 익힌다. 마치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잠깐 바라본 뒤에도 그 잔상이 눈에 남는 것처럼, 목표 이물질의 위치를 시선과 머릿속에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실제 스윙에서도 시선은 공에 머물지만, 의식과 궤도는 자연스럽게 공 앞 목표 지점을 향하게 된다.

### Training 4 스틱 왕복 훈련

공을 치지 않고 골프채나 가벼운 스틱을 활용해 스틱 위에서 헤드를 왕복시키는 연습을 한다. 바닥에 다른 스틱이나 클럽을 목표 방향으로 곧게 놓고, 그 위를 따라 클럽 헤드를 부드럽게 스윙해본다. 헤드가 스틱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목표 방향으로 곧게 뻗는 경로를 몸에 익힌다. 이 방법은 공이 없으므로 부담 없이 궤도와 리듬을 훈련할 수 있고, 실전에서 목표 지점까지 헤드가 나아가는 감각을 크게 향상시킨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하면 임팩트 전후의 헤드 경로가 안정되고, 클럽 페이스가 임팩트 순간 스퀘어하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위의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 몸에 익숙하게 만들면 탄도와 방향이 일정해지면서 특히 100~160m 구간에서의 세컨드 샷과 스리온 성공률이 확연히 높아진다. 또한 공을 맞히는 것보다 목표를 통과하는 스윙으로 인식이 바뀌어, 실전에서의 멘털 안정과 스코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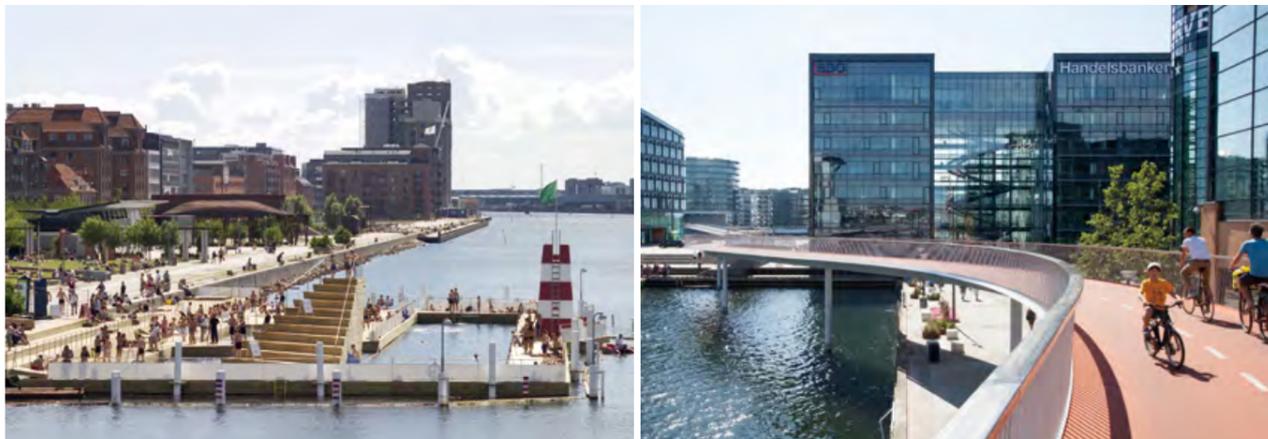
### 요약 Point

1. 풀스윙 대신 컨트롤 샷 - 한 클럽 길게 잡고 80% 스윙으로 하프 스윙 (10시에서 2시)
2. 공 앞 30cm 목표 설정 - 시선은 공에 두되 의식은 목표 지점까지 궤도 유지
3. 루틴화된 연습법 적용 - 라인 훈련 '스틱 왕복 훈련'으로 실전 감각 강화

# 그 도시처럼 읽고, 쓰고, 여행하라

유명 관광지 순회가 아니라, 도시 문화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여행을 하고 싶다면 아마도 이런 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의 문화, 건축, 문학, 영화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도시처럼 사는 법을 배운다.

Writer: 한소영 Photo: 김영사, 소전서가, 흰소, 덴마크 관광청



## 〈관계도시〉

박희찬 지음, 돌베개 펴냄, 2024

코펜하겐과 서울을 오가며 사는 한국의 젊은 건축가가 코펜하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익명성이 지켜지는 현대 도시의 한가운데서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코펜하겐의 도시 구조, 건축, 제도, 문화에 대해 말한다.

## 현대 도시에서 공동체 생각하기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건축가인 이 책의 저자는 코펜하겐 사람들의 관계 맺기에 주목한다. 현대 도시에서 사는 누구나 이웃을 바라보는 눈앞에는 커다란 익명성의 벽이 놓여 있다. 익명성 안에서 과연 공동체적 관계 맺기가 가능할까? 저자는 코펜하겐에서 공동체적 관계 맺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기에 건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본다. 이를 보여주는 예가 크리스티아니아(Christiania)다. 크리스티아니아는 코펜하겐 내에 있지만, 코펜하겐에 속하지 않는 다소 심오한 곳이다. 1971년 군사시설이던 공간에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형성된 '자율 도시'로, 다양한 사람이 자기들만의 규율을 만들어 살아가는 일종의 코뮌이다. 이곳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지은 개성 넘치는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방에서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크리스티아니아 카고 바이크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자전거가 되었다고 한다. 크리스티아니아는 연중 다양한 문화 예술 이벤트를 열어 수많은 코펜하겐 시민과 여행자에게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다.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편한 도시 코펜하겐에서 자전거를 타고 크리스티아니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떻게? 도시와 건축을 매개로 덴마크와 한국 사회의 차이까지 소개하는 이 책은 인문학 서적에 가깝지만, 코펜하겐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이에겐 좋은 여행 안내서가 된다. '평생 한 번은 가 봐야 할 곳'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름난 장소들은 아니지만, 그 도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들이 책에 담겨 있다. 이 책을 참고하면 좀 더 특별한 코펜하겐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카프카가 걷던 곳

이 책의 저자가 말하듯, 그리고 프라하를 가보지 않은 모든 이가 짐짓 생각하듯 프라하만을 위한 여행을 계획하는 일은 별로 없다. 프라하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1시간 30분이면 닿는 거리에 위치해 하루이틀 정도 묵고, 이후 오스트리아 빈으로 넘어가는, 즉 유럽 여행에서 잠시 들르는 도시쯤으로 여기기 마련이다. 저자는 카프카와 프라하에 대해 책을 쓰기로 하고 조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프라하 여행을 그저 구시가지와 카를교를 걸으며 맛있게 소문난 맥주를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지를 알게 됐다. "프라하에 가면 카프카를 몰라도 카프카를 만나게 된다." 이 책은 프라하 곳곳에서 위대한 소설가 카프카의 흔적을 찾는다.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며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 외 시간에 글을 쓰려 한 카프카의 마음 급한 발걸음이 이 도시 곳곳에 녹아 있다. 바츨라프 광장을 거닐다 볼 수 있는 붉고 화려한 네오 바로크 양식의 건물인 아시쿠라치오 니 제네랄리 건물은 카프카가 잠시 근무했던 보험회사 건물이었다. 이후 이직해 삶의 대부분 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재해보험 공단의 건물은 지금 호텔로 변해 있다. 그리고 그 호텔에는 카프카를 주제로 한 다소 기괴한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다. 난해한 인간 군상을 거리낌 없이 소설 속에 그려낸 카프카를 기리는 아주 적절한 방식이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번역한 카프카 작품을 부분 부분 수록했다. 카프카의 삶을 상상해볼 수 있는 장소들과 이 장소와 묘하게 겹치는 카프카의 작품을 읽어가는 것 자체가 웬지 한 편의 소설처럼 느껴진다. 이 책을 읽으면 카프카의 책을 읽고 싶어진다. 또는 프라하로 떠나고 싶어진다. 물론 둘 다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 〈카프카의 프라하〉

최유안 지음, 최다니엘 사진, 소전서가 펴냄, 2024

출판사 소전서가의 '도시 산책' 시리즈의 첫 책이다. 이 시리즈는 위대한 소설가의 산책길을 한국의 젊은 소설가가 직접 걸으며 도시를 새롭게 조명한다. 최근에는 일본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가 걸은 도쿄를 소설가 양선형이 들여다본 〈미시마의 도쿄〉가 출간됐다.



## 전통과 혁신의 사이길을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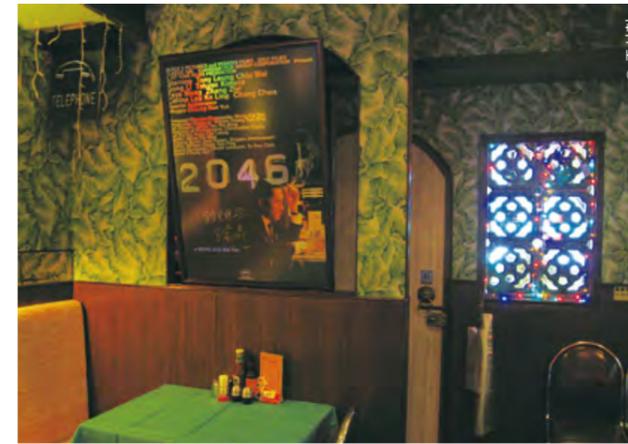
약 1,000년 동안 일본 수도였던 교토의 유적지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만, 교토 거리의 다채로운 문화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는 역사지리학자의 시선으로 외지인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다양한 교토의 생활 문화를 들려준다. 이러한 문화는 대부분 거리에서 발견된다. 교토 거리를 유심히 보면 곳곳에 커다란 돌이 놓여 있다. 아무렇게나 생긴 바위이기 때문에 외지인 눈에는 필 리 없는 이 돌은 이웃과의 대립이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교토 사람들이 일부러 놓아두는 것으로, 엄연히 '이케즈이시'라는 이름까지 있다. 이 돌은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나 지나다닐 때 조심하라는 의미로 집주인이 집 주변에 세운 것이다. 실제로 길을 잘 보고 걷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거리에 이 '못생긴' 돌을 놓는 문화까지 이어져오는 것을 보면 교토가 어느 정도로 옛것을 지켜오는지 가늠이 된다. 교토는 도시형 전통 주택인 '마치야'도 많이 남아 있다. 교토 사람들은 낡고 오래된 이 주택을 헐기보다 카페나 음식점, 명품 매장 등으로 활용한다. 마치야야말로 교토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교토는 조금 예스럽고 고루해 보여도 수도인 도쿄보다 먼저 근대화를 시작한 혁신성을 지닌 도시다. 대학교가 많아 젊은이가 많이 거주해 새롭고 다양한 문화에 열려 있다고 한다. 교토의 전통과 혁신 사이를 걷는 이 책은 지나치기 쉬운 교토 구석구석을 찬찬히 들여다봄으로써 독자에게 여행에 관한 다양한 영감을 안겨준다.



### 〈교토의 방식〉

정치영 지음, 흰소 펴냄, 2025

지리학자인 저자가 1년간 교토 구석구석을 다니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다. 수백 장의 사진과 글로 꼼꼼하게 기록한 교토 모습을 통해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에 열려 있는 다양하고 섬세한 교토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 영화 속 대사를 떠올리며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서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을 떠올린다면 여행은 한층 낭만적으로 변한다. 이 책은 열성적인 '홍콩 영화 팬boy' 주성철 영화 평론가가 쓴 책으로, 영화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홍콩 여행을 제안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홍콩에서 머물며 취재한 덕에 최신의 알찬 여행 정보를 담고 있다. 〈화양연화〉에서 차우(양조위 역)와 수리첸(장만옥 역)이 몰래 만나던 레스토랑이자 〈2046〉의 차우(양조위 역)가 연신 담배를 피우며 소설을 써 내려가던 곳인 골드핀치 레스토랑은 현재 사라졌는데, 다행히 골드핀치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몇몇 직원이 '노스텔지어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개업했다고 한다. 〈2046〉 세트와 〈화양연화〉 세트를 맞볼 수 없게 됐지만, 아쉬운 대로 영화를 추억할 방법이 새로 생겨난 것이다. 〈중경삼림〉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중경빌딩·캐슬 로드, 〈영웅본색〉과 〈무간도〉의 누아르 분위기를 풍기는 황허우상 광장과 휘귀집 흥복, 포린사까지. 영화 속 장소를 훑어가며 장소가 등장한 영화 장면을 설명하니 가보지 않아도 가본 듯한 기분이다. 아름다운 홍콩 영화 스틸 컷과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비교해가며 읽는 여행책은 이 무더운 여름 집에서 보내는 가장 호사스러운 휴가가 되지 않을까? 영화를 보는 관점도, 홍콩 문화에 대한 지식도 풍부해진다. 이 외에 홍콩 스타들의 단골 맛집 등 영화 밖 장소도 소개한다. "아무 곳이나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영화 속 양조위의 대사처럼 각자 원하는 홍콩의 그곳으로 떠나보시길. ●



### 〈헤어졌던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

주성철 지음, 김영사 펴냄, 2022

영화 잡지에서만 20년 동안 일하며 양조위, 유덕화, 왕가위, 성룡, 주성치 등 수많은 홍콩 영화인을 인터뷰한 주성철 기자가 쓴 홍콩 영화 성지순례기다. 수차례 홍콩을 여행하며 영화 속 중요한 배경이 된 홍콩의 아름다운 공간들을 취재해 책에 담았다.



## 자연 속에 차린 최고의 미식 테이블 Fireside Feasts

같은 음식도 야외에서 먹으면 맛이 달라진다.  
“먹기 위해 캠핑을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캠핑의 계절을 맞아 감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캠핑 레시피를 모았다.  
물론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

Editor: 지연 Cooperation. <문스타 캠핑테이블>(문희정 지음, 다독다독)



### 가지 롤라티니

가지에 맛있는 소를 채워 돌돌 말아 구워내는 롤라티니는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매력적인 요리다. 도우 없이 즐기는 떠먹는 피자라 생각하면 된다. 리코타·체더·고다 등 취향에 따라 치즈를 다양하게 넣어도 좋고, 가지 대신 애호박을 사용하면 또 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캠핑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와인 안주 겸 식사로 강력 추천하는 메뉴다.

#### 재료(2인분)

가지 1개, 크림치즈 50g, 모차렐라 치즈 80g, 스트링 치즈 2~3개, 올리브 오일, 베이컨 100g, 토마토소스 200g, 양송이버섯 2개, 양파 ½개, 바질잎 10g,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바게트 또는 모닝빵

#### 만들기

1 가지는 모양대로 길고 얇게 썰고, 베이컨은 3×4cm 폭으로 자른다. 스트링 치즈는 3등분하고, 양파와 양송이는 다진다. 자르고

남은 베이컨은 다진다.

- 2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가지를 노릇하게 굽는다.
- 3 구운 가지 위에 크림치즈를 바르고 베이컨, 모차렐라 치즈, 스트링 치즈, 바질잎, 크림치즈를 올려 돌돌 말아 가지 롤을 만든다.
- 4 팬에 토마토소스, 양파, 양송이, 다진 베이컨,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 5 ④에 가지 롤을 올리고 뚜껑을 덮거나 쿠킹 포일로 감싸 약한 불에서 6~7분간 익힌다.
- 6 바게트나 모닝빵을 곁들여 먹는다.

# 간풍 소스 등갈비튀김

밀간한 등갈비에 감자 전분을 골고루 입혀 두 번 튀겨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살아난다. 여기에 간풍 소스를 더해 감칠맛을 살렸다. 플레이팅할 때 대나무잎이나 엽란 등을 깔면 캠핑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연의 맛을 더할 수 있다.

### 재료(2~3인분)

등갈비 1kg(2대), 감자 전분(튀김용+전분물용 1작은술), 물 50ml, 식용유, 레몬(선택, 데코용)  
**밀간** 진간장 3큰술, 청주 2큰술, 생강 가루 ½작은술, 소금 1큰술, 매실청 1큰술  
**간풍 소스** 간장 10큰술, 식초 10큰술, 설탕 5큰술, 청양고추 3개, 홍고추 2개

### 만들기

- 1 등갈비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다.
- 2 밀간 재료를 잘 섞어 등갈비를 고루 버무리 후 1시간 이상 숙성한다.(미리 밀간해서 캠핑장에 가져가면 편하다.)
- 3 숙성한 등갈비에 감자 전분을 골고루 묻힌 다음 육에 식용유를 넣고 두 번 튀긴다.
- 4 팬에 간풍 소스 재료를 모두 넣고 끓이다가 전분물(물 50ml, 전분 1작은술)을 부어 농도를 조절하고,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잘게 다져 넣는다.
- 5 ③의 튀긴 등갈비를 소스에 버무리며 도마나 접시에 담고, 데코용 레몬을 얇게 썰어 올린다.



밀간한 등갈비는 노끈으로 나뭇가지에 고정 한 뒤 모닥불로 간접 훈연하는 방법도 있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지만, 고기가 익는 동안 불멍하는 재미가 있다. 이때 고기가 마르지 않도록 중간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장작불이 숯불이 되면 직화로 조금 더 익힌 뒤 간풍 소스를 뿌리거나 찍어 먹는다.



# 소고기말이된장전골

그리들에 푸짐하게 끓여 먹는 된장전골은 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먼저 그리들 위에 채소소고기말이를 구워 먹다가 찌개 재료를 넣어 진한 된장전골로 이어가길 추천한다. 마무리로 햇반을 섞어 즐기면 든든한 한 끼로 손색없다. 캠핑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와인 안주 겸 식사로 강력 추천하는 메뉴다.

### 재료(2~3인분)

사부사부용 등심 1kg, 부추 80g, 깻잎 10장, 팽이버섯 100g, 두부 150g, 애호박 ½개, 감자 1개, 양파 ½개, 청양고추 2개, 된장 2큰술, 물 700ml, 코인 육수 1알, 햇반 1개,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 만들기

- 1 도마에 사부사부용 등심을 겹쳐 길게 올린 뒤 소금과 후춧가루로 밀간한다.
- 2 그 위에 부추, 깻잎, 팽이버섯을 줄지어 올린 후 돌돌 말아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3 두부·애호박·감자·양파는 깍둑썰기, 청양고추는 송송 썬다.
- 4 그리들에 물을 반만 넣고 코인 육수와 된장을 푼 뒤 중앙에 ③의 재료를 올리고 바깥쪽에 소고기말이를 빙 둘러 올린 다음 끓인다.
- 5 고기가 익으면 먼저 먹다가 남은 물을 마저 붓고 전골을 끓여가며 먹는다. 마지막에 밥을 말아 먹는다.



소고기말이가 번거롭다면 소고기와 부추, 팽이버섯을 넓게 펼쳐 구운 뒤 그리들 한쪽으로 가지런히 모아두고 된장찌개를 추가로 끓여 곁들여도 된다.



## 청양살사 연어튀김

캠핑에서 색다른 요리를 원한다면 살사 소스를 곁들인 연어튀김을 추천한다. 새콤하고 매콤한 소스가 바삭한 연어와 잘 어울린다. 게다가 연어는 기름에 넣자마자 금방 익어 실패할 확률이 적다.



### 재료(3~4인분)

구이용 생연어 600g, 샐러드 채소 150g, 식용유 적당량

**연어 밀간** 소금·후춧가루·파프리카 분말 또는 케이준 가루(선택) 약간씩

**튀김옷** 밀가루 1컵(200g), 달걀 2개, 빵가루 2컵(400g)

**아보카도 살사 소스** 청양고추 2개, 완숙 토마토 1개, 아보카도 ½개(또는 냉동 큐브 100g), 양파 ½개, 올리브 오일 3큰술, 레몬즙 2큰술, 핫소스 1큰술, 설탕 1큰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 만들기

- 1 연어는 분량의 재료로 밀간한다.
- 2 밀간한 연어에 밀가루-달걀-빵가루 순으로 튀김옷을 입힌다.
- 3 청양고추·토마토·양파는 다지고, 아보카도는 으개서 소스용 재료와 골고루 섞어 아보카도 살사 소스를 만든다.
- 4 튀김용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넣고 180℃ 온도에서 ②의 연어를 튀긴다.
- 5 넓은 도마나 큰 접시에 곁들이 채소를 깔고, 연어튀김을 올린 뒤 아보카도 살사 소스를 뿌린다.



토르티야가 있다면 샐러드와 같이 넣어 싸 먹으면 색다른 느낌으로 즐길 수 있다.

## 사과 팬케이크

색다른 브런치나 간식을 찾고 있다면, 꼭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캠핑장에서 카페 부럽지 않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메뉴다. 사과에 팬케이크 반죽을 얹혀 구우면 부드러운 팬케이크와 아삭한 사과, 여기에 은은한 시나몬 향까지 더해져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사과를 더하면 느끼함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 재료(2~3인분)

팬케이크 믹스 100g, 우유 30ml, 시나몬 가루 ½작은술(선택), 달걀 1개, 사과 1개, 버터 1큰술, 메이플 시럽 또는 요구르트 약간

**토피ング** 무화과, 사인머스켓, 블루베리 또는 제철 과일

### 만들기

- 1 팬케이크 믹스와 우유, 달걀, 시나몬 가루를 섞어 반죽한다.
- 2 사과를 모양대로 얇게 썬 뒤 ①의 반죽을 입힌다.
- 3 팬에 버터 한 큰술을 두르고 ②의 사과 반죽을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 4 사과 팬케이크를 그릇에 올리고 과일을 토피한 뒤 취향에 따라 메이플 시럽이나 요구르트를 끼얹는다. 🍴



### <문스타 캠핑테이블>은

푸드 인플루언서 '문스타'가 캠퍼로서 선보이는 새로운 요리 여정이다. 자연의 감성과 아웃도어 라이프를 담아 낸 60가지 캠핑 요리를 통해 야외 미식의 새로운 경험을 제안한다. 불과 조리 도구, 그릇, 플레이팅까지 아웃도어 키친의 와일드한 매력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담았다. 캠핑장은 물론, 일상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어 애주가와 집밥러 모두에게 유용하다.



# 늦춰야 산다, 슬로 조깅

화제의 중심에 선 저속 노화의  
바통을 이어받은 건 슬로 조깅이다.  
속도를 늦춰야 더 건강해지는 요즘 운동법!  
조깅보다 슬로 조깅이 대세인 이유를 알아본다.

Writer: 한소영 Photo: 프리픽, 게티이미지뱅크



설렁설렁 뛰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열심히 뛰지 않는데 운동 효과가 있겠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그는 '슬로 조깅' 중인 트렌드세터일 확률이 높으니까. 요즘은 천천히 뛰는 슬로 조깅이 대세다.

왜 천천히 달리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을까? 최근 러닝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 한편, 부상이나 건강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사증후군을 앓는 비만인이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람은 달리기를 힘들어한다. 특별한 부상이 없다 해도 달리다 무릎에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이러다 관절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멀리하게 된다. 이때 슬로 조깅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부상 위험이 적으므로 과체중인 사람이나 중년층이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슬로 조깅은 젊은 세대에도 어필한다. 빠르게 달리는 러닝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즉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조깅을 하

는 사람이라면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닐 터. 살을 빼기 위해 달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운동 효과만 있다면 조금 덜 고통스러운 슬로 조깅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슬로 조깅은 러닝과 함께 야외 풍경을 감상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매력까지 있다.

## 어떻게 천천히 달릴까?

슬로 조깅은 시속 3~6km로 천천히 뛰는 운동법이다. 쉽게 말해 빨리 걷는 속도와 비슷하게 달린다고 보면 된다. 걷는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중년층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핵심은 '앞꿈치 착지법'을 사용해 좁은 보폭으로 경쾌하게 뛰는 것이다. 앞꿈치 착지법, 즉 '포어풋 Forefoot' 방식으로 발 앞부분부터 땅에 닿도록 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체중이 실리는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이때 뒤꿈치를 일부로 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 얼마나 효과 있을까?

흔히 달리는 것은 빠르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숨이 차고 힘들어야 몸에 긍정적 변화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몸만 축난다고 믿는 경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천천히 뛰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잘만 활용한다면 숨이 차고 고통스럽게 달리는 것보다 더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슬로 조깅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피로 물질이 쌓이기 전까지의 강도로 달리는 데 있다. 이런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운동이라 일컫는다. 저강도 유산소운동은 지방이 가장 잘 사용되며, 지방 산화 과정을 촉진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

또 천천히 달리는 것은 같은 시간으로 비교하면 소모되는 칼로리가 적지만, 운동의 빈도와 시간을 늘리기는 더 수월하다. 그래서 실제로 저강도 유산소운동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천천히 뛰는 대신 더 긴 거리를 달리길 권장한다. 슬로 조깅을 할 때는 평소보다 50% 긴 거리를 뛰는 것이 좋다. 초보자는 30~45분 달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매주 10~15분씩 늘려 가면 좋다. 저강도 달리기를 60분 지속하면 30분 달린 경우보다 오히려 근육이 덜 피로하고, 달리는 속도도 향상된다고 한다. 슬로 조깅은 최소 60분, 주 2회 이상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어렵다면 '미드 풋 Midfoot', 즉 발의 가운데 부분부터 닿는 느낌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생리학적으로는 최대 심박수의 60~70% 강도로 달리는 것이 이상적이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느냐로 강도를 판단하면 쉽다.

### 슬로 조깅 기본자세

1. 자세를 곧게 한 뒤 상체를 비스듬히 앞으로 기울인다.
2. 시선이 정면을 향하도록 턱을 들고, 팔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3. 달릴 때 보폭은 10~15cm가 적당하다(좁은 보폭으로 경쾌하게).
4. 앞꿈치가 땅에 먼저 닿도록 뛰다(아려우면 발 가운데 부분이 먼저 닿는 느낌으로).
5. 숨이 차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한다(1분에 180보 정도).



#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 01 자산 관리 전문가 그룹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전략과 전망에 기반하여 주식, 채권,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주택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매수와 매도, 보유 부동산의 진단, 가치증진 방안과 투자분석까지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풍부한 부동산 투자 정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WEALTH &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과 부에 대한 혜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행은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 송도에서 만난 TWO CHAIRS의 품격

TWO CHAIRS W는 예상한 대로 인테리어가 이목을 집중시켰다. 벌써 아홉 번째 특화센터인 만큼 어느 센터에서든 TWO CHAIRS 특유의 고급스러운 공간 철학이 잘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 자체보다 ‘국제도시 송도’라는 입지가 주는 상징성에 더 주목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은 곧 빛나갔다. 라운지를 중심으로 상담실·세미나실·회의실이 빌딩 창가를 따라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공간에서는 탁 트인 서해 바다와 골프장이 어우러진 오션 뷰가, 또 다른 공간에서는 고층 빌딩이 이어진 세련된 시티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마치 상하이·두바이·싱가포르의 금융 중심지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다. TWO CHAIRS W 송도가 자리한 형지타워 일대에 즐비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R&D 시설, 그리고 도보권에 위치한 고급 주거지와 센트럴파크까지 TWO CHAIRS W 송도의 위상을 설명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입지다.

박정선 센터장은 “아직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부적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송도의 위상에 걸맞은 프리미엄 라운지와 전용 상담실을 중심으로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고객 동선, 조명, 가구 하나까지 세밀하게 고려해 수도권 첫 특화센터의 상징성을 넘어 송도 자산가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간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 수도권 최초 프리미엄 자산관리 거점 TWO CHAIRS W 송도

국제도시 송도에 TWO CHAIRS의 첫 특화센터가 출범했다.  
글로벌 기업과 R&D 클러스터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허브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Writer: 강은진 Photo: 박충렬



TWO CHAIRS W 송도라운지에 설치된 글라스 월. 가변형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으며, 스마트 글라스로 목적에 따라 보안유지도 가능하다.



1



2

1 박정선 센터장과 주혜영 PB지점장을 비롯한 TWO CHAIRS W 송도의 핵심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 송도 바이오산업의 중심부가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테리아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탁 트인 전망이다.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PGA 챔피언십이 열린 18홀 규모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이 상담실 창문 가득 시원하게 펼쳐진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망은 라운지나 세미나실처럼 공유 공간에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TWO CHAIRS W 송도에서는 고객 전용 상담실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적 풍경이다. 이는 단순한 공간 배치를 넘어 지금 송도가 얼마나 빠르게 신항 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 할 수 있다.

### 성공로 입증된 인재 전면 배치

송도가 '신항 부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입지나 공간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 결국 그 중심에는 인재가 있다. TWO CHAIRS W 송도는 출범 단계부터 최정예 인력으로만 구성해 송도의 자산가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을 이끄는 박정선 센터장은 지점 예금 창구에서 경력을 시작해 은행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했으며, 경기도 최대 산업 단지에서 기업 오너 고객을 전담하는 PB로 활약하며 특화된 역량을 쌓았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PB 우수 직원 은행장상을 수상하며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경험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기업 자산가가 교차하는 송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무엇보다 TWO CHAIRS W 송도가 자리한 형지타워 일대는 셀트리온, SK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대규모 R&D 시설 및 데이터 센터와 인접해 있다. 이처럼 한국 바이오산업의 허브와 나란히 위치한다는 것은 단순한 금융 센터를 넘어 기업 자산가와 신흥 부자 고객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의미한다. 박정선 센터장은 "TWO CHAIRS W 송도는 수도권 최초 특화센터라는 타이틀을 넘어 '프리미엄 고객 경험 제공'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존



시티 뷰가 인상적인 고객 상담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금융에 강한 우리은행의 정체성이 밑바탕이 된 자산관리 서비스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송도의 자산가 고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VIP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방카슈랑스, 상속·승계 등 종합 솔루션을 통해 송도만의 금융 생태계를 완성해나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 인천 지역 자산가 고객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베테랑 주혜영 PB지점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개인금융 팀장과 PB팀이 합류해 송도 고객에게 특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다. 규모가 아닌 '최정예 인적 구성'이야말로 송도의 위상에 걸맞은 TWO CHAIRS W 송도의 진정한 경쟁력이다.

### 방카슈랑스로 확장하는 자산관리 솔루션

TWO CHAIRS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금융 상담을 넘어 부동산, 세무, 상속·승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고객 한 사람의 니즈에 맞춰 전담 PB와 전문가들이 함께 설계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금융거래를 넘어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다. 특히 송도는 교육 인프라와 글로벌 기업, 첨단산업단지가 집약된 도시답게 고객층도 한층 다채롭다. 채드릭 송도국제학교, 포스코자사고 등이 위치해 자녀 교육을 위해 송도로 이주한 젊은 자산가부터

인천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부를 축적해온 올드 머니까지 복합적인 스펙트럼을 지닌다.

주혜영 PB지점장은 "송도 고객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신흥 자산가인 동시에 전통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온 지역 자산가가 공존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준 높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이 필수적이며, TWO CHAIRS W 송도가 바로 그 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TWO CHAIRS W 송도는 우리은행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추진한 이후 문을 연 첫 특화센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에 따라 상품 다양화가 가능해지면서, 송도 고객들은 더욱 폭넓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됐다. 박정선 센터장은 "TWO CHAIRS W 송도는 수도권 최초라는 상징성뿐 아니라, VIP 맞춤형 자산관리와 더불어 방카슈랑스, 기업금융 등 다양한 영역을 결합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송도의 자산가 고객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강조한다.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플랫폼

TWO CHAIRS W 송도는 단순한 자산관리 특화센터를 넘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플랫폼을 지향한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회의실

다. 이를 위해 골프·건강·미술·음악·세무·부동산·재테크 등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는 고객 초청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금융 상담을 넘어 삶의 가치와 안목을 넓히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형식적 이벤트를 지양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수준 높은 콘텐츠와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 일부러 찾아 듣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송도의 고객 특성에 맞춘 원스톱 자산관리 솔루션도 강화한다. PB뿐 아니라 세무, 신탁, 부동산, 상속·증여 전문가까지 한자리에 모여 고객의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한 금융상품 상담에 그치지 않고, 고객 개인과 집안의 장기적 자산 전

략을 함께 설계함으로써 진정한 파트너십을 완성하는 것이다.

박정선 센터장은 “송도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신흥 부가 교차하는 특별한 도시인 만큼 TWO CHAIRS W 송도 역시 단순한 금융 거점을 넘어 미래 금융 허브로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이곳을 단순히 은행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라며, 금융을 넘어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강조한다.

이처럼 TWO CHAIRS W 송도는 금융과 문화, 라이프스타일을 통합적으로 제안하는 새로운 공간이다. 수도권 최초라는 상징성을 넘어 국내 자산가 고객에게 가장 먼저 선택받는 ‘프리미엄 자산관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송도를 대표하는 금융 랜드마크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 TWO CHAIRS W 송도

주소 인천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제1동 15층 15호  
 전화 032-858-3692



#### special interview

“국제도시 송도,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미래 금융 랜드마크 될 것”

TWO CHAIRS W 송도 박정선 센터장

#### TWO CHAIRS W 송도의 센터장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도권 최초 자산관리 특화센터인 만큼 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수도권 최초 자산관리 특화센터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금 창구에서 출발해 30여 년간 현장을 지켜온 경험과 지난 7년간의 PB 역력이 오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부담도 컸지만 도전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기대가 더 큼니다. TWO CHAIRS W 송도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자산관리 거점으로 성장시켜나갈 것입니다.

탁월한 역량으로, PB로서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송도센터장을 맡으시며 주목받고 계십니다. 센터장님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PB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저는 능력 있는 PB를 단순히 상품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소통 능력, 시장을 읽는 전문성,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함께 해결하려는 책임감이 핵심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객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PB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PB는 금융 전문가를 넘어 고객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우리은행 TWO CHAIRS 서비스의 위상을 실감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상담을 마친 고객님이 “이제 자산관리 방향이 명확해졌다”며 안도하실 때, 또 “TWO CHAIRS를 만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고 말씀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고객의 작은 걱정 하나라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드릴 수 있을 때, 그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걸 실감하죠.

특히 TWO CHAIRS는 단순한 금융 상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무는 물론 상속·증여·가업승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상황에 맞춘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이 TWO CHAIRS만의 독보적인 강점이자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마지막으로 TWO CHAIRS W 송도 센터장으로서의 목표와 포부를 들려주세요.

송도는 국제도시이자 수도권 최초로 TWO CHAIRS가 선택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저는 이곳을 고객이 신뢰하고 머무를 수 있는 프리미엄 자산관리 허브로 키워, 송도를 수도권 자산관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세우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송도가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미래형 금융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TWO CHAIRS W 송도 SPECIAL PB PROFILE

#### 박정선 센터장

- PB 경력 7년
- TWO CHAIRS W 청담/선부동/안양금융센터 PB지점장 역임
- 반월공단 VG 대표 PB 역임
- 2021년, 2022년 우리은행 PB 우수 직원 은행장상 수상



#### 주혜영 PB지점장

- PB/FA 경력 4년
- 2024년 KPI 우수 직원 은행장 표창장 수상
- 2021년, 2022년, 2023년 연속 우수 직원 상장 수상



# 연준의 9월 선택, 물가와 독립성을 동시에 지킨다

불투명한 인플레이션과 시장 상황에서 앞으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9월 발표의 주요 포인트는 결과가 아니라 그 선택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Writer: 박형중(우리은행 WM상품부 Economist) Photo: 프리픽, 한경DB



## 불투명한 인플레이션 경로 속 연준의 선택은?

최근 미국의 물가 지표가 엇갈리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하자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곧 금리를 크게 인하하리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이어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다. 기대가 솟구쳤다가 꺾이는 이 변화무쌍한 흐름은 지금 연준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연준은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책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 혼선, 무역 긴장, 특히 상호 관세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경로가 여전히 불투명한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 9월 FOMC, 연준이 전달할 표현 방식이 더 중요

9월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인하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를 경기부양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연준은 이번 인하로 정치적 간섭에서의 독립성을 조용히 과시하고, 동시에 물가안정 의지를 금융시장에 확인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제스처, 즉 '매파적 인하(Hawkish Cut)'에 가까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부 산업의 경기둔화, 고용 냉각등이 그 근거다.



“ 기대가 솟구쳤다가 꺾이는 이 변화무쌍한 흐름은 지금 연준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연준은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책무를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 혼선, 무역 긴장, 특히 상호 관세의 여파로 인플레이션 경로가 여전히 불투명한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가 인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물가는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돌고, 관세 여파도 점점 현실화할 조짐이다. 결국 9월 FOMC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보다 연준의 표현 방식, 즉 ‘메시지’에 더 큰 초점이 맞춰진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 과거 사례: 물가 불안 안고 기준금리 인하하면 장기적 균형 훼손

이런 맥락은 과거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헤지펀드 LTCM의 파산 위기는 연준을 세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이끌었다. 당시 인플레이션은 안정되지 않았지만, 금융 불안의 확산을 막는 것이 선결 과제였다. 위기를 진정시킨 것은 성과였지만, 이후 주식시장 과열이 IT 버블로 이어진 부작용도 있었다. 즉, 물가 불안을 안고 내린 인하가 장기적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교훈이다. 반대로 2019년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무역마찰로 경기둔화 우려가 실제로 존재했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였다. 연준은 이를 ‘보험성 인하<sup>Insurance Cut</sup>’라 불렀고, 이는 경기방어라는 명분을 갖춘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연준은 “연속 인하 국면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지만 시장은 이를 인하 사이클의 시작으로 해석했다. 이 두 사례는 지금 연준 앞의 선택지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비교점이 된다. 1998년은 물가 위험을 무릅쓰고,

2019년은 경기둔화가 명확했다. 지금은 이들 사이 여단에 있는 형세다. 경기둔화 신호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고, 물가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이번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그 의미는 정치적 독립성과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기대 관리라는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세 가지 시나리오

그렇다면 연준의 선택에 따라 금융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 1. 단발성 매파적 인하 후 동결 유지

위험자산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으나, 연속 인하 기대가 꺾이며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고, 단기채 금리는 하락, 장기채 금리는 반대로 오를 수 있다.

#### 2. 금리인하 없이 동결 지속

금융시장은 실망하겠지만, 연준의 신뢰는 장기적으로 강화될 여지가 있다.

#### 3. 연속적인 인하 사이클 개시

위험자산이 반등하겠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가 자극돼 채권시장 불안,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첫 번째, 단발성 인하 후 동결이다. 이는 연준이 시장에 메시지를 주되,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절충적 선택이다

### 연준의 메시지: 물가와 독립성 동시에 지킨다

중요한 것은 연준이 일부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준은 시장이 기대를 스스로

“ 중요한 것은 연준이 일부러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준은 시장이 기대를 스스로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지만, 이는 시장의 기대를 연준의 의도에 맞추기 위한 수단이지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은 아니다.”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지만, 이는 시장의 기대를 연준의 의도에 맞추기 위한 수단이지 공포를 조장하는 방식은 아니다. 시장이 빅 커트 혹은 연속적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다 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게 되면, 연준은 더 강한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 글쓰기보다 메시지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9월 FOMC에서 핵심은 ‘금리인하 여부’보다 인하에 덧붙여질 언어(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에 있다.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 금리인하는 단기 불안을 완화하면서도 장기 해석 오류를 낳기 쉽다. 그래서 투자자와 정책 당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인하의 횟수가 아니라, 연준이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다. 숫자보다 문장이, 금리보다 언급이 더 강력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번 9월, 연준의 메시지는 아마도 “우리는 물가와 독립성을 동시에 지킨다”가 될 것이다. ●

박형중  
우리은행 WM상품부  
Economist



# 주택 월세 시대 어디까지 왔나

지난 6월 발표한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임대주택 시장의 구조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주택담보대출 허들이 높아지면서

전세가 상승에 따른 월세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를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다.

Writer: 함영진(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팀장) Photo: 프리픽



주거 공간은 개인과 가족의 휴식 그리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곳이다. 누가 무상으로 집을 내주지 않는 한 대부분은 내 집 마련 또는 임대차를 선택하게 된다. 높은 집값과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허들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는 크게 전세와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유형으로 나뉘는데, 요 몇 년 사이 월세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2024년 말 본격화한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등이 겹치며 전세가 상승과 매물 부족 현상이 월세화의 속도를 높였다.

실제 전국 주택의 월세 거래 비중이 2023년 55.5%에서 2024년 57.8%, 2025년 61%로 상승세고,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도 각각 43.9%, 43.8%, 45.6%로 오름세다. 비(非)아파트는 올해 74.9%의 수치를 나타내며 사실상 10채 중 7채가 월세로 거래되고 있다. 960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 주택시장의 월세 거래도 전국 못지않다. 2025년 전체 주택으로는 63.7%, 아파트는 44%, 비아파트는 74%를 기록했다.

## 6·27 대출규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규제 수위가 높아지며 월세화는 좀 더 빨라질 전망이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에서 80%로 강화됐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금지해 아파트 입주장에서 임대인의 분양 잔금을 임차인의 전세대출 킵 보증금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도권 임차인의 전세대출 총액이 감소하거나, 아파트 입주 시장에서 전세 매물 출회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6월 27일 전후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매물량 변동이 뚜렷하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PAY 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가공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을 살펴보자. 7월 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이 1만9,242개로 대출 규제 전(6월 25일 기준) 1만8,872개와 비교하면 2%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물건은 2만4,986개에서 2만4,011개로 4%나 감소했다. 전세 매물에서 월세 매물(보증부 월세 포함)로 일부 전환된 것이다. 요사이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80%로 낮춘 데 이어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할 것이라 얘기가 꾸준히 나온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자 비용을 스트레시 DSR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이 현실화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된 임차인이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겠다.

월세 가액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월세 거래 중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정보를 가공해 살펴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이하 월세

[표 1] 2025년 5월 누계 거래 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단위: %)

구분	전체 주택				아파트				비(非)아파트			
	5년 평균	2023	2024	2025	5년 평균	2023	2024	2025	5년 평균	2023	2024	2025
전국	49.4	55.5	57.8	61.0	40.1	43.9	43.8	45.6	57.7	66.4	70.0	74.9
수도권	48.6	54.4	57.0	59.8	40.4	43.6	44.1	44.6	54.8	63.3	66.7	71.9
서울	51.3	57.2	60.3	63.7	39.9	43.6	42.9	44.0	56.8	64.4	68.6	74.0
지방	51.1	57.6	59.3	63.3	39.6	44.3	43.2	47.3	65.0	74.0	78.0	82.1

출처 국토교통부 '25년 5월 주택통계

[표 2] 2022~2025년 7월 연간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가액 대별 비중(단위: %, %포인트)

구분	2022	2023	2024	2025	'25-'22
50만원 이하	54.37	51.68	52.25	50.05	-4.32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9.36	31.15	29.71	30.48	1.12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13.48	14.15	14.66	15.75	2.27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1.79	1.92	2.16	2.39	0.60
300만원 초과	1.00	1.11	1.22	1.34	0.34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정보 가공(2025년 7월 24일 계약일 집계 기준)

[표 3] 2022~2025년 7월 연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액 대별 비중(단위: %, %포인트)

구분	2022	2023	2024	2025	'25-'22
50만원 이하	39.88	37.40	36.62	36.90	-2.98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8.47	27.95	27.71	26.90	-1.57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21.72	23.18	23.07	23.21	1.49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5.85	6.68	7.24	7.58	1.73
300만원 초과	4.08	4.79	5.36	5.41	1.33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 정보 가공(2025년 7월 24일 계약일 집계 기준)

거래 비중이 80.53%로 압도적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100만원 초과~200만원의 초과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은 2022년 13.48%에서 2025년 15.75%로 2.2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50만원 이하 월세 거래 비중이 4.32%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2022년 대비 2025년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가액 대별 비중은 저가 월세 거래가 점차 감소하고 고가 월세는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50만원 이하와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월세 거래 비중이 -2.98%, -1.57% 각각 감소했지만, 100만원 초과~300만원 초과 등 고가 월세 가액 대별 비중은 모두 관련 수치가 늘어났다.

2025년 서울 아파트 가액대별 월세 거래 비중은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가 50.11%로 절반을 넘긴 상태다. 300만원 초과와 200만원 이하가 5.36%와 7.58%로 2024년(5.36%)과 2025년(5.41%) 두 해 모두 5%를 넘겼다. 아

파트의 월세화는 고가 월세 거래 비중 증가와 더불어 월세가 상승과 임차인의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 변화하는 주택임대차 시장구조

향후 금리인하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를 더 부추길 것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4년 10월 3.25%에서 11월 3%로 낮아진 뒤, 2025년 2월과 5월 추가 금리인하로 2.5%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 금융기관가 중 평균 수신금리 중 신규 취급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예금은행)는 올해 1월 3.07%에서 5월엔 2.63%로 기준금리 인하 흐름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였다.

임대인의 관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내출 능력만 된다면

[표 4] 주택 유형별·지역별 전월세전환율(단위: %)

주택 유형	지역	2024.11	2024.12	2025.01	2025.02	2025.03	2025.04
전체 주택	전국	6.1	6.2	6.2	6.3	6.4	6.4
	수도권	5.8	5.9	5.9	5.9	6.0	6.0
	지방	6.8	6.9	6.9	7.0	7.1	7.1
	5대 광역시	6.3	6.4	6.4	6.6	6.6	6.7
	8개 도	7.4	7.5	7.4	7.6	7.6	7.6
	서울	5.2	5.2	5.3	5.3	5.4	5.5
	아파트	전국	5.2	5.2	5.2	5.2	5.3
수도권		5.0	5.0	5.0	5.0	5.1	5.1
지방		5.6	5.5	5.5	5.6	5.6	5.6
5대 광역시		5.3	5.2	5.2	5.3	5.3	5.3
8개 도		6.0	6.0	6.0	6.0	6.0	6.0

출처 한국부동산원「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세를 받아 은행 예금을 하는 것보다 월세 놓는 게 유리해진 셈이다. 실제 2025년 4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전체 주택 기준 6.4%로 금융권의 저축성 수신금리 2.63%(5월 기준)보다 2배가량 높다.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도 5.3%(2025년 4월)를 나타내는 등 5%를 돌파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 수요를 제외하고, 보유와 임대를 통한 운영수익 목적의 주택 자산 운용은 전세보다 월세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이제 주택(아파트) 월세는 더는 1인 가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입주) 감소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 기준금리 인하 추세,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월세 전환 현상이 장기화할 것이다. 앞으로 월세 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다양하게 변주하는 유연한 주거 형태의 수요로 좀 더 전이할 전망이다. 높은 월세는 가계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임대인에게는 금융권 정기예금 이자 이

상의 수익을 가져다주거나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주택 보유세와 주택 유지보수 비용의 토대가 될 것이다. 다만, 월세 시대에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부 주택정책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임차인 보호 법제 강화나 공공임대주택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 바우처와 월세 대출상품 개발 등 빠른 월세화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또한 지속해서 진화할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택임대차 시장의 수급과 가격, 월세화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팀장

#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한 절세 비법

1가구 1주택이라도 취득 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가 상생임대주택 제도다. 상생임대주택은 무엇이고, 어떤 세제 혜택과 필요조건이 있는지 알아보자.

Writer: 한정우(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1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양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지만,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라 해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 상생임대주택이란?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sup>##</sup>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 임대 시장에서 이뤄지는 주택 임대 형태로, 상생을 바탕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특징이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유리한 임대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소정의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연혁 및 기간 연장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 규정은 2022년 신설 당시에는 주택 수 요건(임대 개시일 현재 1가구

상생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sup>##</sup>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민간 임대 시장에서 이뤄지는 주택 임대 형태로, 상생을 바탕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특징이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유리한 임대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야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과 가액 요건(임대 개시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 수 요건, 가액 요건이 폐지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상생임대주택 계약 체결 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이도 법의 소정 요건만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생임대주택 연혁

구분	종전	현재
가액 요건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삭제
주택 수 요건	임대 개시일 현재 1가구 1주택	삭제
계약 체결일	2021.12.20~ 2022.12.31	2021.12.20~ 2026.12.31



## 상생임대주택 적용 요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직전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상생임대차계약 이전에 주택 소유자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 이때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2)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할 것

### 3) 2021년 12월 20일~2026년 12월 31일에 계약체결 및 임대 개시할 것

상생임대차계약은 반드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중에 체결해야 하고, 임대 개시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 4)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일 것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을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해야 한다. 임대료를 증액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구분	직전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차계약
계약 체결일 & 임대 개시일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체결	2021.12.20~2026.12.31
임대 기간	1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증액 제한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증가율 5% 범위 이내

## 상생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 1)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2년 이상 거주)

#### 적용 배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상생임대차계약 기간(2년 이상)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4%) 적용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연 2%씩 공제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연 4%씩 적용되어 보유기간 10년 시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즉, 거주 기간이 없어도 보유만으로 연 4%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시 거주 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거주 기간은 0년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예시(상생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1주택 상태에서 양도 가정)

$$\text{장기보유특별공제율} = [(\text{보유기간} \times 4\%) + (\text{거주 기간} \times 4\%)] = [(10\text{년} \times 4\%) + (0\text{년} \times 4\%)] = 40\%$$

### 3) 등록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등록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려면 양도하려는 거주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기간(2년 이상)은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 연 2%씩 공제되지만,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연 4%씩 적용되어 보유기간 10년 시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즉, 거주 기간이 없어도 보유만으로 연 4%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

구분	내용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2년 이상 거주) 적용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4%) 적용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 주택(2년 거주 의제)

상생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과 달리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세제 혜택은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은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 팁이 될 것이다. ☺

한정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전문가





# For Readers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측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완료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 Special Gift



파나소닉 페이스 스티머  
EX-XS01(2명)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2025년 9월 12일(금)~10월 24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WON뱅킹(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WON뱅킹 ➡ 전체메뉴 [생활 혜택] ➡ TWO CHAIRS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 웹진] 배너 상단 구독하기를 신청하시면 매월 첫째주,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투체어스PB ➡ TWO CHAIRS 웹진



WON뱅킹 바로가기

# Welcome to TWO CHAIRS

## TWO CHAIRS 특화센터

TWO CHAIRS W, TWO CHAIRS Exclusive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 TWO CHAIRS W

<b>청담</b>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6층	T. 02-511-4909(내선 455, 510, 512)
<b>도곡</b>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1층	T. 02-501-1639(내선 513, 530)
<b>센트럴시티</b>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층	T. 02-3482-6586
<b>압구정</b>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청담동) 트리니티플레이스빌딩 4층	T. 02-518-6135(내선 311, 312)
<b>여의도</b>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 TP타워 19층	T. 02-6373-2200(내선 212, 213)
<b>부산</b>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우동) 4층	T. 051-741-3625(내선 213, 214)
<b>송도</b>	인천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 제1동 15층 15호	T. 032-858-3692(내선 311, 313)



TWO CHAIRS W 도곡

### TWO CHAIRS Exclusive

<b>본점센터</b>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16(내선 3312, 3367)
<b>강남센터</b>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0~314)
<b>시그니처센터</b>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서초동) GT타워 24층	T. 02-562-7964(내선 405, 406)

##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안, 은퇴와  
 노후설계 솔루션 제공, 듀얼케어  
 자산관리서비스 등

**세무 자문서비스**  
 자산의 보유와 매도(종부세, 양도세),  
 자산이전(상속·증여세), 기업승계 포함 법인  
 관련 세무자문 등

**부동산 자문서비스**  
 부동산 투자정보 분석,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문, 보유 부동산 진단을 통한 케어  
 특화서비스 제공 등

##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채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여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해외 유약, 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꽃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전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5-0818(2025.01.31~2026.02.28)